



코스피 2355.05 (-15.81)	코스닥 812.70 (-17.97)
금리 (2년 국채) 0.925 (-0.009)	환율 (USD) 1132.90 (+1.00) (22일)



[뉴스]
무서운 전월세 상승세
강서 마곡
두 달 새 2억 ↑
02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인천 송도의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방문,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 선도 모델 도시인 송도를 방문한 것은 지역균형 뉴딜 관련 첫 번째 방문이자, 여섯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다. /연합뉴스

“스마트시티에 10조 투자 (5년 내) 15만개 일자리 만들 것”

文 대통령 ‘지역 뉴딜’ 행보
인천 송도 스마트시티 방문

올 말 데이터 통합플랫폼 보급 확대
국민 60% 스마트시티 체감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국판 뉴딜 사업 일환인 ‘지역균형 뉴딜’ 현장 행보로 인천광역시 송도 스마트시티를 찾았다. ‘한국판 뉴딜은 도시문제 해결이다’라는 주제로 가진 현장 행보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이날 오후 송도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방문했다.

현장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IC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도시 인구 집중에 따른 주거·교통·환경 등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모델이다.

특히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송도는 스마트시티 개념을 처음 도시 관리에 도입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 발전시켜 주민들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꾼 상징적 장소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마트시티를 두고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표현한 뒤 “이제 우리는 한국판 뉴딜로 세계 최고의 ‘스마트 시티’ 국가로 나아가고자 한다.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에 10조원을 투자하고,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를 전국적으로 더 빠르게 실현하겠다”며 “정부는 올해 말까지 데이터 통합플랫폼 보급을 전국 108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전 국민 60%가 스마트시티

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 철도 등 공공인프라를 디지털화하겠다. 또한 하천과 댐, 상하수도, 도로에 원격 제어시스템을 구축해 장마와 폭우, 산사태, 화재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물류, 배송의 디지털화를 위해 2022년까지 로봇과 드론 배송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시범도시를 조성하고, 2025년까지 100개의 스마트 물류센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2027년까지 레벨 4단계의 완전 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 ‘지자체 및 기업과 협력으로 국가 스마트시티 역량 확대’, ‘도시 데이터를 공유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새 서비스를 만드는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 육성’ 등의 전략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자율협력주행체계(C-ITS) 장비를 개발하는 디지털 SOC 중소기업인 쉐카네비콤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생산라인 시찰 이후 기술연구소로 이동해 레이저빔으로 실거리를 측정하는 자율협력주행 핵심부품라이다(LiDAR) 센서 시연과 자율협력주행체계 연구개발 모습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SOC 디지털화의 성공을 위해 많은 기업이 투자하고 기술개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번 일정은 지난 13일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 관련 첫 번째 지역 방문이자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전후로 ▲데이터댐(6.18) ▲그린에너지·해상풍력(7.17) ▲그린 스마트스쿨(8.18) ▲스마트그린 산업단지(9.17) ▲문화콘텐츠 산업(9.24)에 이은 여섯 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코로나 극복” 협업생태계 절실 규제 밸런스 유지, 제약 급성장

메트로신문 ‘2020 제약&바이오’ 포럼
혁신신약개발 생태계 중요성 절감
규제산업 불구 신속심사 등 좋은경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지만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 전례 없는 팬데믹 이후 K-방역을 이끈 제약·바이오산업이 ‘국가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21일 메트로경제와 메트로신문 주최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0 제약&바이오 포럼’에 모인 전문가들은 코로나19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다시 한번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를 주제로, 웨비나 형태로 진행됐다. <관련기사 L7·L8면> 기조강연을 맡은 허경환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대표는 “오랜 시간 코로나19 해결을 위해 고민하며 전 세계가 진중하게 협업하는 시대를 맞이했다”며 “한국은 그동안 K-방역을 통해 상당히 발전했고, 이를 계기로 우리의 현재 위치를 검토하고, 어떻게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트로미디어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페럼홀에서 ‘2020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했다. 웨비나(웹+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이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코로나19는 혁신 신약개발을 위한 생태계의 중요성도 절감하는 계기도 제공했다.

허 대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은 협업의 중요성과 혁신 신약개발을 위한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진중하게 경험하고 논의하게 됐다”며 “이런 계기는 향후 K-바이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국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는 것도 큰 기회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자체 개발을 끝까지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하며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는 “메르스 위기로 방역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듯, 코로나19를 계기로 민관 협력 시스템을 안착시켜야 한다”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수출과 연구개발을 더욱 매진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허 대표는 “제약·바이오는 규제 산업이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신속 심사, 치료목적허가 등의 과정을 거치며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는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을 습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세경 기자 seelle@metroseoul.co.kr

몰아치는 경제3법... ‘기업근간 흔들’ 아우성

뉴메트로 5주년 기업과 함께 한 5년, 함께 할 50년

2부. 포스트 코로나

③ 기업을 춤추게 하라

기업경영·투자 제약 과도한 규제
재계, 해외 투기자본 간섭 등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밀어붙이는 ‘공정경제 3법’에 기업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경제 3법이 기업 경영과 투자에 제약을 거는 과도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일부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총칭해 일컫는 말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로잡아 경제 민주화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3법 중 기업의 반대가 가장 거센 건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지난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비대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분리선출 ▲대주주 3% 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한 명 이상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는 제도다. 또 대주주가 3% 이상의 지분을 가졌어도 의결권을 3%로 제한해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해외 투기자본의 기업 경영 간섭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해 5% 미만의 소수 지분으로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에 자사 추천 사외이사 선임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엘리엇은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법이 개정될 경우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와의 정책간담회에서 “국제 투기자본과 국내 투기펀드의 공격, 소액주주의 소송남발,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3% 룰에 따라 경쟁사 내지 관련 펀드가 내부 경영체제로 진입한다면 기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법대응 능력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대형 외부 세력의 공격과 소액주주에 의한 소송남발에 휘말리게 돼 경영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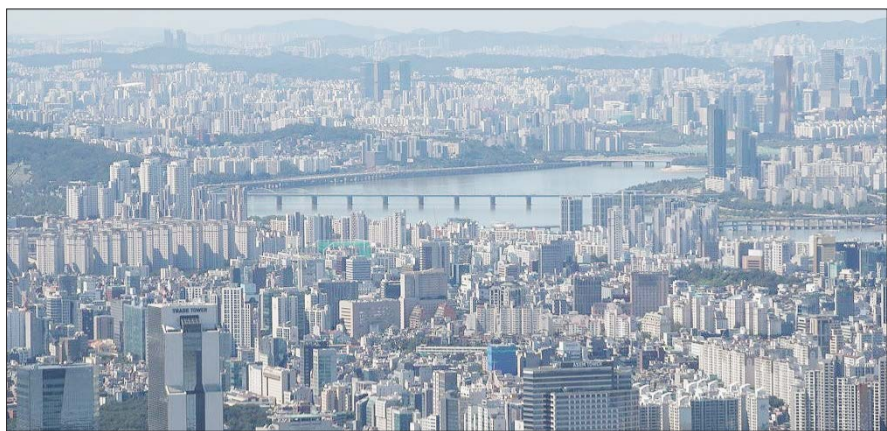
다중대표소송제란 모회사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자회사 경영진에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면에 계속>

/김현정 기자 hiki@

멈추지 않는 전·월세 상승세... 강서 마곡 두달새 2억 ↑

전국 전세품귀 속 마곡 물량 속속 마곡엠밸리 9단지 내년 입주 앞두고 전용면적 84㎡ 2단지 전세가 8억 7월 5.8억... 3개월만에 2.2억 ↑
“실거주 집주인, 최근에 이주결정 내년 초 시세이하 거래 가능할 것”



서울 전역이 전세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 전세호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신축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서구 마곡일대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르고 있다.

22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전역이 전세품귀 현상을 겪고 있지만 강서구 마곡동은 ‘마곡엠밸리’ 아파트 단지 위주로 전·월세 물량이 제법 나왔다. 이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지난 2014년~2016년 준공됐다. 9단지의 경우 오는 2021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세는 호가가 평균적으로 1억5000만~2억원 가량 오른 모습이다. 등록된 전세 물건을 살펴보면 마곡엠밸리2단지(전용면적 84㎡)가 8억원에 물건이 있다. 이 면적형은 지난 7월 5억8000만원, 8월 6억5000만원에 계약되며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6단지(전용면적 114.91㎡)는 9억원에 물건이 나왔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면적형은 임대차법 시행 이전에 7억8000만원에 계약됐다”며 “호가 11억원을 제시하는 집주인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5억8000만원에 계약된 8단지(전용면적 84.88㎡)는 7억5000만원에 물건이 나왔다.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전용면적 84.98㎡)는 8억원에 물건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8월 5억5000만원, 9월 6억원에 계약됐다.

월세가격도 상승세다. 전세난으로 월세 계약 비율이 증가하면서 시세가 계약에 반영되고 있다. 마곡엠밸리4단지(전용면적 84.56㎡)가 보증금 5억원,

월세 100만원에 물건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지난 5월 보증금 3억 월세 9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5단지 전용면적 114.91㎡는 보증금 7억원, 월세 120만원에 물건이 나왔다. 이 면적형의 경우 지난 6월 보증금 4억원 월세 65만원에 계약됐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마곡엠밸리의 경우 집주인들이 실거주하다가 최근 이주를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전·월세 물량이 제법 있는 편이다”라며 “9단지는 오는 2021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KB부동산 리브온이 지난 1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시황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격은 비강남권지역 위주로 올랐다. 그중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낸 곳은 강서구로 전 주 대비 0.81% 올랐다. 그 뒤는 성북구(0.80%), 은평구(0.71%), 성동구(0.66%), 노원구(0.58%)였다.

반면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완화되고

있다. 지난 달 21일 0.28%의 상승폭을 나타낸 서울 매매가격은 이달 5일 0.24%, 12일 0.22%를 나타내며 누그러지고 있다. 성북구(0.30%), 성동구(0.29%), 마포구(0.29%), 영등포구(0.27%), 강남구(0.27%)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상승을 보일 뿐이었다.

전체 거래량 대비 매매거래 비율도 월별로 줄고 있다. 6월 이후 3개월 연속 전체 아파트 거래량 중 매매비율이 하락 중이다. 한 때 패닉바임(공황구매)을 나타냈던 서울 아파트 거래비율은 8월 55.56%(10만6969건 중 5만9429건)로 나타났다. 이는 64.72%(15만8348건 중 10만 2482건)의 매매거래량 비율을 기록한 6월 보다 9.16% 낮아진 수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셋값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며 “마곡지역은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가 밀집된 곳이며 지하철역 근처 오피스텔이 많아 향후 전·월세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김용덕 손보협회장 “연임 뜻 없어”

차기협회장 구도 ‘안갯속’

연임이 유력했던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사진)이 2차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를 앞두고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연임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회추위 위원들에게 문자로 전달했다. 김 회장의 임기는 다음달 5일 만료된다.

김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손보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 선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해석했다. 손해율이 상승하는 등 보험업계의 수익성 악화 속에서 손 회장은 당국과 업계 간 소통 역할을 수행하며 현안 해결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협회 내부적으로도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며 직원들과 신뢰를 쌓았다.

가장 유력한 인사로 하마평에 올랐던 김 회장이 이탈하면서 차기 협회장 구도도 안갯속이다. 그간 차기 회장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강영구 메리츠화재윤리경영실장과 유관우 김앤장 고문 등



이 거론돼 왔다. 강 실장과 유 고문은 모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출신으로 보험을 담당했던 경력이 있다. 강 실장은 제9대 보험개발

원장을 지낸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론에 거론되는 사람이 아닌 제3의 거물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오는 27일 회추위때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회추위는 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코리안리 등 손보협회에 최고경영자(CEO) 6명과 장동한 보험학회장, 성주호 리스크관리 학회장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김정남 DB손보 부회장이 선임됐다.

회추위는 오는 27일 2차 회추위를 열고 후보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후보군이 결정되면 이후 회원사 투표를 거쳐 차기 협회장이 최종 결정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

JY “위기속 기회 찾아... 미래로 나아가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 베트남 출장 총리와 면담... R&D센터 중요성 강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베트남 현지 사업을 둘러보며 미래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19일부터 22일까지 베트남 출장을 진행했다. 한중희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과 노태문 무선사업부장, 이재승 생활가전사업부장과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이 함께 했다.

이 부회장이 베트남을 찾은 것은 2018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올 초 베트남 R&D 센터 준공식에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취소된 바 있다. 앞서 2012년에는 이근희 회장과 박근 공장을 함께 방문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우선 20일 하노이에 건설 중인 베트남 R&D센터 공사를 현장에 살피었다. 응우옌 쑤익 폭 베트남 총리와 면담을 통해 R&D 센터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베트남 R&D 센터는 지난 3월 건설을 시작해 2022년 말 완공을 계획 중인 시설이다. 동남아 최대 규모인 연면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베트남 현지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삼성전자

8만㎡에 지상 16층 지하 3층으로 조성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인력 3000여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이어서 21일까지는 하노이 인근 박닌과 타이엔응에 있는 삼성 복합단지를 찾았다.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생산공장을 점검하며 사업 현황도 보고받았다. 22일에는 호치민으로 자리를 옮겨 TV 및 생활가전 생산 공장을 살펴보고 중장기 사업 전략도 논의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큰 변화가 닥치더라도 기민

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자”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야 한다. 뒤쳐지는 이웃이 없도록 주위를 살피자. 조금만 힘을 더 내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편 삼성은 베트남에서도 ▲주요 대학과의 산학협력 ▲기능올림픽 국가대표의 훈련 지원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실시 ▲제조전문 컨설턴트 및 금형전문가 양성 ▲방과후 학교인 삼성희망학교 운영 등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CSR 활동을 진행 중이다.

/김재용 기자 juk@

다중대표소송제, 불필요 소송 남발 원인

>> 1면 ‘뉴메트로 5주년’서 계속

재계는 이 제도가 불필요한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이야기한다. 경제개혁연구소에 의하면 지난 1997~2017년 법원에 제기된 주주대표소송 가운데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21년간 총 137건으로, 1년에 6.5건 꼴이다.

김경필 고려대 사회학과 강사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의 경제민주화 계획, 실천, 과제” 논문에서 “임기 전반기 등

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대안은 잘 제도화되지 못했다”면서 “총수 일가를 견제하는 안은 대부분 법제화에 실패했고 불공정거래나 경제력 집중 억제 안은 부분적으로만 시행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약이 제도로 전환되지 못한 이유는 당·청의 전략 미비와 자본과 야당의 반발, 정책 거버넌스의 문제, 특히 대화기구가 공약 후퇴의 정당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정 기자 hjk10@

카드업계, 저신용자 카드론 금리 상향

8월 총 이용액 3.9조 전년비 11.7% ↑

카드론 이용액이 전년보다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한 가운데 카드사들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주로 이용하는 저신용자의 금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폭증에 의한 부실 우려가 제기되면서 선제적으로 속도조절에 나섰다라는 분석이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카드 전업사 신한·삼성·KB국민·현대·

우리·롯데·하나카드 7개사 카드론 이용액은 3조90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신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신용대출 증가에 대해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 같은 우려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라는 분석이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7개사 카드 전업사 표준등급 구간별 카드론 금리 평균 운영

가격(기준금리에 조정금리를 반영한 최종금리)은 12.76%~14.42%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카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카드론 금리를 낮추면서 전월 카드론 운영가격보다 금리를 많게는 0.27%포인트 가량 낮췄다.

신용등급별로 살펴보면 신용등급이 높으면 금리를 낮추고,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금리를 높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금리의 경우 카드론 총량이 증가하면서, 위험관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요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영석 기자 ysl@

‘유리 제조’서 에너지기업 변신, 삼광글라스의 지배구조 개선 스토리

주주행동 수용, 순자산가치로 합병... 주가 오르고 社債 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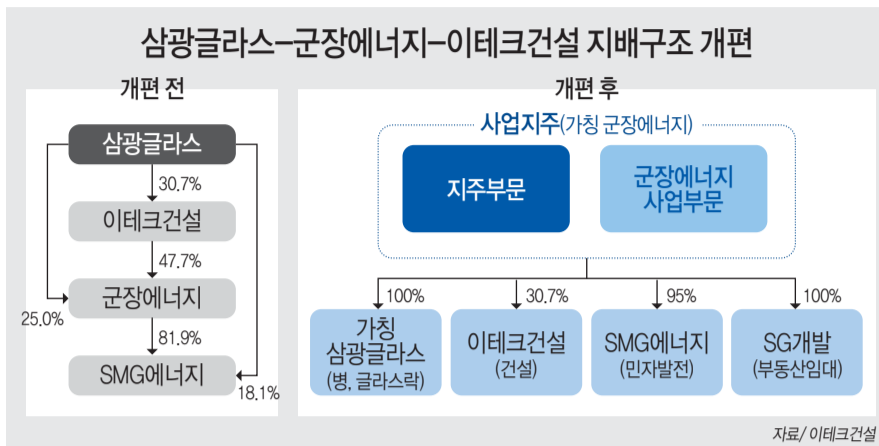
상장사 최초 순자산가치 반영
자문사·소액주주 목소리 영향
2.6만원 주가 3.9만원 넘어서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 이테크건설과 합병을 앞두고 주가 상승과 회사채 완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는 한 자문사와 소액주주들의 ‘주주행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시장가격이 아닌 순자산가치를 활용한 삼광글라스의 합병은 다른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삼광글라스는 오는 31일부터 합병회사 ‘SGC그룹’으로 재탄생 한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군장에너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인수·합병안을 최종 승인하면서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삼광글라스는 ‘유리그룹’ 회사에서 ‘종합에너지기업’으로 진화한다.

◆기업가치 재평가로 주가 ↑

삼광글라스 주가는 올해 들어 29% 가량 올랐다. 또 군장에너지는 18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 물량을 모두 완판시켰다. 3사의 합병이 결정된 후 기업구조 재평가에 대한 기대가 실렸다는 평가다.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주목받은 이유는 소액주주들의 ‘주주행동’이 영향을 미쳤다. D&H투자자문사와 소액주주(이하디앤에이치연합)가 삼광글라스의 주식 가치를 낮게 평가한 3사 합병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고, 결국 삼광글라스는 당초 시장가격이 아닌 순자산가치로 재평가해 합병비율을 조정했다. 당시 ‘주주행동’을 이끌었던 자문사



관계자는 “최종 합병안도 만족할 순 없지만 상장사 최초로 시장가격이 아닌 순자산가치를 반영해 기준가액을 산정하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결정할 때 시장가격으로 결정한다. 다만, 주가가 회사의 주당 자산가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를 쓸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다. 대게 대주주들은 상장사 주식 가치가 저평가 됐을 때를 활용해 본인들의 지분이 높은 비상장사와 합병해 지분율을 끌어올리는 방식을 이용해왔기 때문이다.

삼광글라스는 지난 3월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와 합병을 추진해왔다.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을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으로 분할한 뒤 두 회사의 투자부문을 군장에너지와 합쳐 지주사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삼광글라스는 합병 기준가액을 2만64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최근 10년래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을 때였다. 반면 이테크

건설의 투자부문의 가치는 주당 23만 5859원, 군장에너지는 주당 6만 7137원으로 책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디앤에이치연합은 삼광글라스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 기업 가치를 최대한 높이고, 삼광글라스의 가치는 낮추는 방식으로

합병 후 회장 일가의 지분을 높이려는 ‘꼼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광글라스의 적절한 기준가액은 8만1387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소액주주가 지배구조 개선

이후 삼광글라스는 기준시가를 10% 할증한다고 공시했다. 합병 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삼광글라스의 주식 가치를 기준시가 대비 10% 더 얹어주겠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코로나19 영향을 재검토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10% 할증한 금액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의 1주당 합병 가액은 1 대 3.22 대 2.14로 산정됐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또 다시 증권신고서를 정정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삼광글라스는 기준가액을 3만6451원으로 제시했다. 이번에는 디앤

에이치연합의 요구대로 시장가격이 아닌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했다. 합병비율은 1 대 2.57 대 1.70으로 초안보다 삼광글라스의 상대적인 가치가 다소 높아졌다. 금융원은 효력발생 승인을 내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디앤에이치연합은 반대의사를 밝혔고, 국민연금 역시 삼광글라스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의 분할 및 합병·분할합병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면서 합병이 결정됐다.

비록 디앤에이치연합이 요구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삼광글라스 주주들은 50% 수준의 손해를 막아냈다. 합병 시 삼광글라스 1주당 가격이 2만6000원에서 결정될 수 있었으나 이를 3만6000원으로 끌어올렸고, 현재 주가는 3만9000원을 넘어서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빅히트 꿈 꾸는 아이와 재미 개미 ‘사자’ vs 기관 ‘팔자’

고점 대비 반토막 등 주가 폭락
개인 투자자 5500억원 사들여
4대주주는 상장 직후 3600억 팔아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빅히트가 6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다. 개미(개인투자자)들은 빅히트를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상장 직후 기록했던 고점 대비 주가는 반 토막 난 상태인데, 빅히트의 4대 주주 ‘메인스톤’이 3600여 억원어치를 장내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주가 폭락의 주범으로 꼽힌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빅히트는 전날 대비 1.40% 상승한 18만1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소폭 오름세를 보였지만, 상장 당일 기록한 고점(35만1000원) 대비 48.29% 하락한 상태다.

지난 21일 빅히트의 4대 주주 메인스톤 유한회사는 15일부터 20일까지 빅히트주식 120만769주를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또 빅히트 주요 주주 명단에는 오르지 않았던 메인스톤의 특수관계인인 이스톤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도 같은 기간 38만1112주를 처분했다. 메인스톤의 한 주당 평균 매도 단가는 22만9770원, 이스톤의 평균 매도 단가는 23만2296원이다. 이번 매도로 메인스톤과 이스톤은 각각 현금 3644억원, 885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매도를 통해 메인스톤의 빅히트 지분율은 6.97%에서 3.60%로, 이스톤의 지분율은 2.19%에서 1.12%로 축소됐다.

빅히트 상장 이후 매물이 ‘기타법인’에서 쏟아져나왔다는 점에서 두 회사의 주가 매도가 빅히트 주가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메인스톤의 경우 의무보유 기간이 걸려 있지 않아 상장 후 차익실현이 가능했다. 최대 주주가 오히려 주식을 대거 처분해 공모주 시장의 불신이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같은 기간 5500억 원어치를 사들여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을 받아냈다. 주가가 저점을 기록하고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1일부터 외국인투자자가 매수세로 전환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순간을 넘어 일생의 행복까지
한화손해보험

가족의 행복이 곧 당신의 행복이기에
우리의 생각은 당신의 삶을 넘어섭니다
순간을 넘어 일생까지 행복할 수 있도록
당신 곁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LIFE PLUS 한화손해보험
LIFEPLUS는 한화손해보험, 한화생명,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이 함께합니다.

부정채용 늘고 사망자에도 배당금... 수협 방만경영 도마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

맹성규 의원 “임직원자녀·친인척 등 계약직→정규직 전환 비율 2.5배”

이기구 의원 “금융사기 매년 증가 모니터링 요원 확대 등 대책 필요”

2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의 방만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의원들은 매년 증가하는 채용비리와 금융사기, 사망자에게도 배당금을 지급하는 조합·조합원들의 관리 미비 실태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임직원 자녀·친인척 계약직→정규직 전환율 2.5배

이날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협의 임직원 자녀·친인척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일반 계약직원보다 2.5배 높다”며 “특히 지역조합의 경우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역조합에 근무 중인 임직원 자녀는 41명, 친인척은 38명으로 총 79명이다. 이들 중 계약직



임준택 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장 등이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으로 입사한 자녀 및 친인척은 67명(77%)으로 최근 5년간 지역조합의 평균 계약직 채용비율(68%) 보다 높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43%(29명)에 달해 지역조합 평균 전환비율(17%)에 비해 2.5배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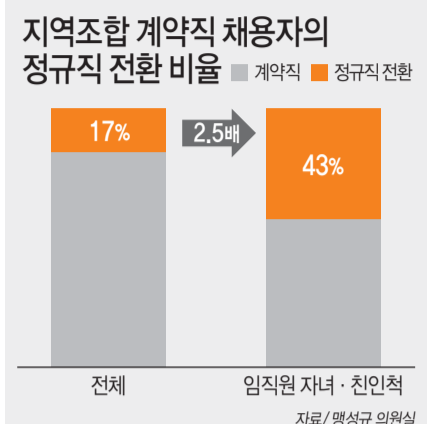
맹 의원은 “지역조합의 채용은 서류-필기-면접을 거치는 ‘고시채용’과 서류와 면접만으로 이뤄진 ‘전형태용’ 두 종류로 이뤄진다”며 “지역조합의 경우 전형태용비율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수협의 지역조합에 대

한 채용비리 실태를 점검하고, 3곳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A지역조합은 필기 성적우수자를 탈락시키고, 임직원 관련자나 특정지역 출신자를 합격시켰다. B지역조합은 비상임 감사의 조카를 채용하기 위해 응시 연령을 조정하고 지원자가 5명 있었는데도 지원자가 없으며 재공고를 통해 특정인을 채용했다. C지역조합도 예정에 없던 인성평가를 실시해 인성점수를 높게 받은 조합장의 지인과 임직원 친인척 다수를 합격시켰다.

이경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급변까지만 전환고시를 보고, 앞으로



는 공채식(고시채용)으로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사기 피해 3년간 급증... “FDS고 도화할 것”

수협은행의 매년 증가하는 금융사기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협은행의 금융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요원을 늘리는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협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19년까지 발생한 금융사기는 총 682건으로 피해액은 56억4700만원이다. 보이스피싱 건수는 2017년 20건(1억

9500만원)에서 2019년 97건(6억4200만원)으로 4.5배 증가했다. 대출사기 건수도 2017년 103건(6억4000만원)에서 2019년 288건(25억4900만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피해액은 대다수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8개 주요 시중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조289억원이다. 이 중 수협은행의 피해금액은 122억원으로 수협은행이 36억원(30%), 지역수협이 86억원(70%)이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지능화하고 피해금액도 커지고 있어 피해방지대책과 환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고령자와 조합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조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민 수협은행장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이 일부 노후화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도 “지역조합 현황을 확인해 개선작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무자격 조합원 실태파악, 신속정리”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만4644명에 달한다. 무자격 조합원은 ‘자격이 없는 자’가 1만2014명, ‘사망’ 1만2126명, ‘파산’ 등으로 인한 무자격 조합원이 504명이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사진)이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신속히 관리해나간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자격 조합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수협 조합원은 1년 중 60일 이상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가 가입할 수 있다.

이기구 의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조합원 중 무자격 조합원은 지난해 5017명이다. 무자격조합원은 지난 2015년 5568명, 2016년 4014명, 2017년 3896명, 2018년 6059명으로 5년간 무자격조합원이 2

수협이 지난 5년간 이들에게 분배한 배당금은 2015년 861만원, 2016년 1395만원, 2017년 3,654만원, 2018년 1억 3069만원, 2019년 5616만원으로 총 2억 4596만원이다.

임 회장은 “현재 문제인식을 하고, 조합원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신속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임준택, 수협서 344억 저리대출 ‘특혜논란’

(수협중앙회장)

김승남 의원, 취임 1년6개월만에 배우자·자녀 대표자인 업체 4곳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취임후 1년 6개월 만에 수협은행에서 무려 344억원의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도 어업인과 비교해 크게 낮아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

22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취임 이후 본인과 가족 소유의 업체들을 통해 수협은행으로부터 334억원의 대출금을 받았다. 임 회장은 지난 2019년 4월 취임했다. 신용대출금 10억원까지 합하면 취임 이후 1년 6개월 동안 총 344억원을 수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다.

대출을 받은 업체는 배우자와 자녀가 대표자로 있는 대진수산(154억원), 미광농동(90억원), 대진통상(80억원), 대진어업(10억원) 등 4곳이다. 대출목적은 운전자금, 타행 대환 등이었으며, 수협은행은 임 회장에게 정책자금인 수산해양일반자금과 수산발전운전자금으로 대출을 내줬다.

문제는 이들 대출 금리가 일반 어업인이 받은 우대대출상품 금리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현재 수협은행에서 취급하는 어업인 우대대출상품 금리는 어업경영자금대출 4.46%, 상호금융우대대출은 4.54%, 조합원생활안정자금대출 5.14% 등이다.

그러나 임 회장이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대형선망어업인 특화대출 17억 6000만원의 대출금은 금리 0.97%다. 수협은행의 어업인 우대 대출상품 중 1% 이하의 금리 상품은 없다. 임 회장이 상당한 우대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수협중앙회장이 실질적인 인사권과 경영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상임 신분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 업체를 담보로 어업인과 비교해도 상당한 우대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어획량 감소, 태풍 피해, 코로나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정서와 괴리도 크고 이해충돌의 소지도 있는 만큼 대출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환매연기’ 급증

박광온 의원, 최근 10년 총 361건 작년 187건, 올 164건 등 사례 발생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이후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 연기 건수는 모두 361건으로 집계됐다. 환매 연기는 2011~2017년 0건, 2018년 10건을 기록하다 지난해 187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8월 까지 164건의 환매연기가 발생했다.

금융권은 규제 완화 이후 조성된 부실 사모펀드들의 만기가 다가오자 환매 연기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원에서 올해 10월 현재 428조6693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 등은 모두 이 기간 동안 조성됐다.

문제는 이같은 사모펀드 부실사태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모펀드 51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8월 말 기준 환매 중단 펀드의 규모는 6조589억원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환매 중단 가능성이 있는 펀드 규모를 7263억원으로 추산했다. /나유리 기자

금융위 산하 8개 금융공기업 직원 36% ‘억대연봉’

산은, 억대연봉 58.8% ‘최대비율’ 기업銀, 임·직원 임금격차 3.6배

금융위원회 산하 8개 금융공기업의 직원 36%가 억대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과 여타결제원은 기관장 연봉이 4억원을 초과했고, 억대 연봉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산업은행이었다. 직원과 임원진간 임금격차가 가장 높은 곳은 기업은행으로 3.6배 차이가 났다.

22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8개 금융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직원 2만3992명 중 36%(8724명)가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것

(2019년 정규직, 임원진 평균 연봉)

(단위: 만원,%)

기관	정규직연봉(A)	임원진연봉(B)	정규직대비임원진연봉	차이(B-A)
중소기업은행	9673	34713	3.59배	25040
한국자산관리공사	6954	23909	3.44배	16955
한국예탁결제원	11074	34774	3.14배	23700
한국주택금융공사	7632	23398	3.06배	15766
한국산업은행	10692	32376	3.03배	21684
예금보험공사	8313	24048	2.89배	15735
신용보증기금	8955	24579	2.75배	15624
서민금융진흥원	4964	13288	2.68배	8324

자료=민형배의원실

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80%(6984명)는 연봉 1억~1억5000만원을 받았고, 19%(1678명)는 1억5000만원~2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억대연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

관은 산업은행이었다. 산업은행은 총원 3399명 중 58.8%(1999명)가 억대 연봉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한국예탁결제원 51.9%, 신용보증기금 40.3%, 중소기업은행 33.3% 순이었다. /나유리 기자

증권·보험 급성장, 비즈 포트폴리오 퍼즐 완성... 순익 1.2조

KB금융그룹 3분기 실적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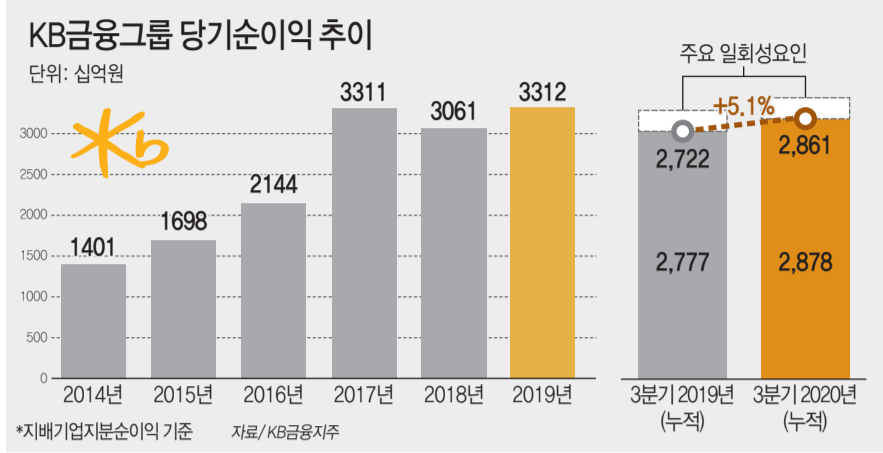
순이자이익·순수수료이익 증가
보수적 건전성 관리로 안정적 실적
포트폴리오 강화·다변화 노력 결실

KB금융그룹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내놨다.

KB금융은 22일 3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166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8.8% 증가했다고 밝혔다.

순이자이익과 순수수료이익이 견조하게 증가했고, 2분기 선제적으로 적립한 대손충당금 전입(1490억원)에 따른 기저효과와 푸르덴셜생명 인수 관련 영업매수차익(1450억원)이 반영됐다.

주요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경상 순이익은 9000억원대 후반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이자이익



과 수수료이익 등 핵심이익이 늘었고, 보수적인 건전성 관리로 안정적인 실적 기조를 유지했다.

3분기까지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은 2조87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늘었다. 올해 75bp(1bp=0.01%포인트)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축소 사이클에서도 견조한 여신 성장에 기반해 순이자이익과 순수수료이익이 확대됐다. 전년도 희망퇴직

비용과 올해 추가 대손충당금, 영업매수차익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경상적 기준으로는 5.1% 성장해 견고한 이익체력을 재확인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촉발된 경기침체와 금리하락 등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강화와 수익기반 다변화 노력의 결실로 전 분기에 이어 안정적인 실적을 시현했

다"며 "특히 금리하락으로 은행업의 수익성에 부담이 되는 시기에 증권·보험의 브로커리지수수료 확대와 IB 부문 실적 개선으로 그룹의 이익체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김기환 부사장은 이날 실적발표회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침체와 각종 금융지원으로 은행 자산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한국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진단하면서 "KB는 그동안 자산의 신용 수준을 꾸준히 개선하고 기본적으로 탄탄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유지해 온 만큼 향후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훼손될 정도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사장은 지난 8월 말 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된 푸르덴셜생명에 대해서는 "오랜 숙원이었던 우량 생명보험사를 인수하면서 KB금융은 보험업에서도 의미있는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금

융권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갖췄다"며 "그룹의 지속가능한 수익성과 성장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푸르덴셜생명의 우수한 채널과 그룹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접목한 프리미엄 영업모델을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B금융의 지난달 말 기준 총자산은 605조5000억원, 관리자산(AUM)을 포함한 그룹 총자산은 90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건전성도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그룹 고정이자여신(NPL·부실채권) 비율은 0.46%로 6월 말 대비 0.02%포인트 개선됐다. 그룹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4.69%, 13.08%를 기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블프 만회 노리는 카드사... 직구혜택 '붓물'

(블랙프라이데이)

코로나로 미뤄진 행사 만회 전략 해외직구 고객 늘며 다양한 혜택

카드사들이 해외 직구에 각종 혜택을 내세워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블랙 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목을 준비하고 있다.

올 상반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각종 프로모션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탓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오는 31일까지 해외쇼핑몰 이용 시 최대 1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우리 마스터카드 고객(법인 기프트카드 제외)에게 이달 말까지 우리카드 홈페이지를 경유해 해외 쇼핑몰 '육스(YOOX)'를 이용할 경우 정상이 제품은 15%, 할인가 제품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카드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분들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합리적인 가격에 이

용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다가올 광군제(다음달 11일), 블랙프라이데이(다음달 27일) 등의 연말 시즌을 대비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KB국민카드도 블랙프라이데이 전야제 격인 '프리(Pre)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오는 31일까지 '프리(Pre) 블프 X 몰테일 배송대행비 할인' 행사를 통해 몰테일에서 결제한 KB국민 국제브랜드카드 회원에게 배송대행비 7달러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카드 역시 이달 말까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50달러 이상 결제 시 '10달러 즉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다음달 말까지 온라인·해외업종 이용금액 '최대 100% 캐시백' 이벤트를 통해 해외 직구족을 사로잡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배송, 파송, 반품의 어려움 탓에 해외 직구를 주저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 선제적으로 보험서비스를 무료

로 제공하고 있다.

하나카드는 국내 카드사 최초로 '해외 직구 보험 무료서비스'를 도입했다. 하나카드의 해외직구 플랫폼 GMH를 통해서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물품이 60일내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도난 포함) 구매비용 보상 ▲배송 물품이 파손 시 48시간 안에 신고할 경우 구매비용 보상 ▲하자 혹은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비용 보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업계에서는 다가올 블랙프라이데이를 통해 지난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프로모션 기회를 놓친 실적을 만회하겠다는 반응이다.

한 카드 업계 관계자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아닐때도 해외직구를 통한 결제 비중이 커지면서, 카드사마다 해외직구족을 위한 각종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면서 줄어든 해외결제를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을 통해 끌어 올리겠다는 전략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영석 기자 ysl@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0일 그랩베트남 본사에서 베트남 모빌리티 기업인 그랩(Grab)과 베트남 스타트업 공동 육성 및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신한금융신동민 베트남 컨트리헤드(오른쪽에서 두번째), 그랩베트남 웬웬 타이 하이 반 대표(오른쪽에서 세번째). /신한금융

신한금융, 越 기업과 스타트업 육성 '맞손'

베트남 모빌리티 1위 기업 '그랩'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0일 호치민에 위치한 그랩베트남 본사에서 베트남 모빌리티 기업인 그랩(Grab)과 베트남 스타트업 공동 육성 및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랩은 '동남아시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베트남 내 1위 모빌리티 기업이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8개국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물류 배송,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한금융신동민 베트남 컨트리헤드와 그랩베트남 웬웬 타이 하이 반 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베트남 스타트업 공동 선발 및 육성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 개발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신한금융의 '신한벤처스랩 베트남'과 그랩은 주요 산업분야의 현지 리딩 기업 및 정부 파트너와 함께 핀테크, 디지털, 운송, 식품, 부동산 등 폭넓은 분야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산업별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한금융은 그랩의 플랫폼과 고객망을 활용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카카오뱅크 청소년 전용카드 가입자 10만명 돌파

'미니' 출시 54시간 만에 성과

카카오뱅크는 10대 청소년을 위해 출시한 '카카오뱅크 미니(mini)'가 출시 54시간 만에 가입자 수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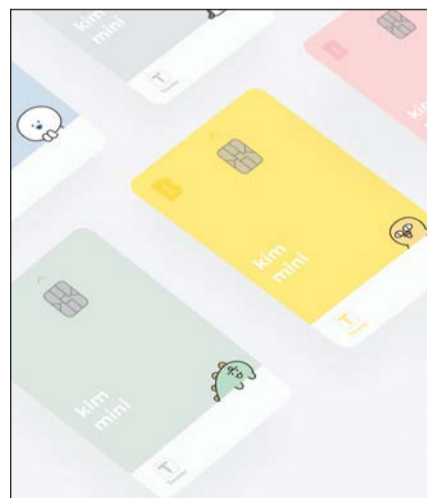
시간당 1850명이 가입한 셈이며, 이날 오전 9시 기준 가입자는 12만4000명이다.

'미니'는 만 14세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만 개설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서비스 가입 대상인 만 14~18세 인구가 약 236만7000명임을 감안하면 이들의 4.2%가 불과 만 이틀 만에

'미니'에 가입했다는 얘기가.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출시 후 지금까지 줄 곳 포털 사이트 10대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청소년 금융 생활 분석 통한 편리한 서비스 창출과 매력적인 디자인 요소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객반응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93%는 '미니'를 주변에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미니'는 10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니즈 캐릭터'를 사용한 첫 번째 카드다. 간편



이체 과정에서 만나는 메시지 카드에도 니즈 캐릭터를 활용해 귀엽고 재치 있는 문구와 디자인으로 제작했다.

/안상미 기자

우리금융, KT와 빅데이터·AI 공동연수

우리금융그룹은 다음달까지 2회에 걸쳐 KT그룹과 빅데이터·AI 공동연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동연수는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 우리금융그룹 계열사 직원 총 40명이 참석해 KT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실습하고 실무에 적용할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KT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빅데이터·AI 연수는 지난 8월에 체결한 우리금융

그룹과 KT그룹 간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의 일환으로 성사됐다.

우리금융 측은 "선발한 직원들은 빅데이터와 AI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KT에 실제 적용한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실습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과제를 도출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금융그룹의 디지털 역량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영석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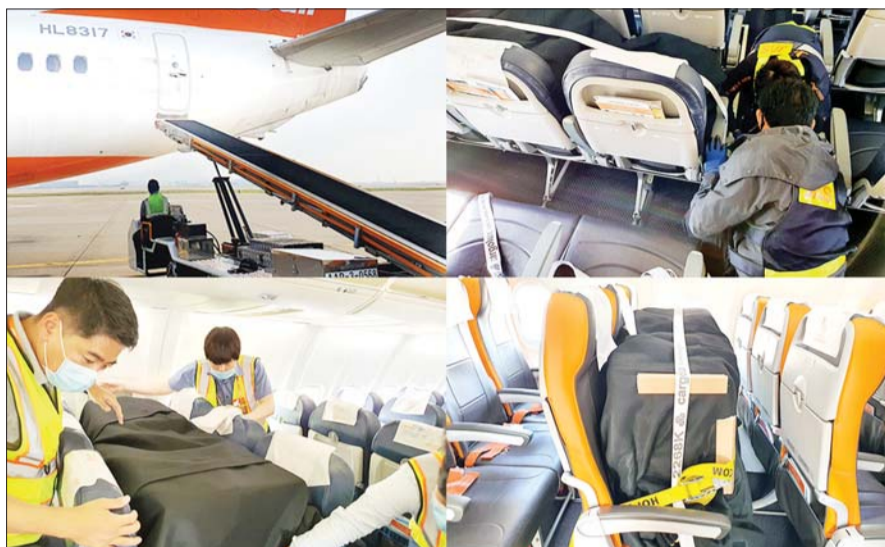
#유상증자 #화물 #中노선... 항공사 '눈물의 생존법'

자금 마련 위해 유상증자 분주
LCC 모회사들 잇따라 출자 나서
여객기는 좌석 떼고 화물 수송
중국 하늘길 열고 수익성 제고

항공업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각각각색의 방법으로 위기 극복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올해 들어 확산한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경영난을 겪고 있다. 지난 2분기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하고, 전 항공사가 적자를 면치 못했다. 여전히 대부분 국제선 노선은 운항을 잠정 중단한 상태인 가운데, 항공 수요도 언제 반등할지 알 수 없어 항공사들은 다양한 자구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항공포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항공 수요는 대폭 줄었다. 올 상반기 국적사를 이용한 여객 수는 1947만4988명으로 전년(4743만6740명) 대비 약 59%가량 감소했다. 특히 항공사 수익의 대부분을 차



제주항공 여객기 객실 내 화물 탑재 시연 모습.

지하는 국제선 여객 수는 올 상반기 878만388명으로, 전년(3124만4285명) 대비 약 72% 줄며 큰 타격을 입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하고, 항공사별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은 ▲제주항공 1511억원 ▲진에어 909억원 ▲티웨이항공 709억원 ▲에어부산 899억원 등이다.

항공사들의 위기 극복 방안은 크게

유상증자, 화물 운송 확대, 중국 노선 취항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최근 들어 항공사들은 자금 마련을 위한 유상증자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진에어는 지난 8월 이사회를 열고 총 1092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해, 이날 신주 발행 가격을 7000원으로 확정했다.

에어부산도 지난달 28일 891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했으며, 티

웨이항공도 당초 720억원에서 1차 발행 가격 확정 이후 668억 2500만원으로 유상증자 규모를 정정했다.

이 같은 항공사들의 유상증자에 모회사들의 참여도 잇따르고 있다. 진에어는 자사의 유상증자에 한진칼이 516억원을 출자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또한 에어부산의 유상증자에도 모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3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으며, 티웨이홀딩스도 300억원 규모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해 지난 20일까지 진행한 청약에서 약 3441억원의 자금을 받아, 자회사티웨이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준비를 마쳤다.

아울러 여객 운송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나마 호조세인 화물 사업에 발을 뻗는 LCC(저비용항공사)도 생겨나고 있다. 전용 화물기를 보유하지 않아 화물 운송이 불가능했던 저비용항공사들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최근 여객기 내 좌석을 떼고 화물만 실어나르고 있다.

제주항공은 이달 22일부터 국내 LCC 중 최초로 태국 방콕 노선에 화물을

탑재해 운송을 시작했으며,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주변 국가로 기내 화물 운송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진에어도 오는 24일부터 인천-방콕 노선에 여객기를 개조한 화물 전용기 1대를 주 2회 일정으로 운항 개시한다. 인천-칭다오 노선도 오는 27일부터 주 3회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티웨이항공은 이달 말 내지 다음 달 초 189석 규모의 B737 여객기 객실 전장 선반과 좌석 위에 소형가전, 의류 원단, 액세서리류 등을 싣고 태국과 베트남 등으로 수송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선 가운데 중국 노선에 취항하며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에어서울은 지난 8월 중국 옌타이 노선을 시작으로, 이달 20일부터 인천-칭다오 노선에 주 1회 일정으로 신규 취항해 운항 중이다. 또한 제주항공은 지난 21일부터 인천-하얼빈 노선을 약 8개월 만에 운항 재개했으며, 에어부산도 지난 15일부터 부산-칭다오 노선을 다시 운항 중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삼성 QLED 8K TV로 미술대회 작품 심사

삼성생명 미술대회 후원 미술대학의 한 심사위원이 21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생명 컨퍼런스룸에서 삼성 QLED 8K TV를 활용해 삼성생명이 주최하는 '제 40회 청소년 미술대회' 예선 작품을 심사하고 있다.

/삼성전자

한화큐셀 “태양광제품 온라인으로 만나세요”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론칭

한화큐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마케팅에 나섰다.

한화큐셀은 지난 21일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인 '큐셀 스마트 시티'를 론칭했다고 22일 밝혔다. 큐셀 스마트 시티는 3D 온라인 전시회와 쇼룸으로 구성된 가상 플랫폼으로, 자사 제품과 솔루션에 대한 정보와 체험을 제공한다.

한화큐셀은 그간 활발한 해외 마케팅으로 주요 시장을 공략해왔다. 특히 전시회, 쇼룸, 오프라인 교육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고객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다수 전시회가 취소되거나 참가가 어려워지면서 마케팅 기회가 제한됐다. 또, 오프라인 쇼룸은 시공간적 제약으로 현장 방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사업 양상을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화큐셀은 이 같은 오프라인 마케팅의 단점을 보완하고, 언택트 마케팅 트렌드가 가속화되는 점에 착안해 큐셀 스마트 시티를 론칭했다.

큐셀 스마트 시티의 온라인 전시회에는 지역별 전시관이 구축될 예정이다.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일본, 호주 등 지역 전시관을 추가로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춰 달리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맞춤형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지역 전시관에서 나아가, 온라인 공장 및 연구소 투어, 제품 및 기술 설명을 위한 웨비나(웹+세미나) 등의 추가 콘텐츠 제공을 구상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본 플랫폼을 통해 주요 시장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을 보고 있다. 오프라인 전시회를 온라인으로 대체할 경우 동일 기간 1.5배 이상의 방문객 수가 기대된다. 또, 전시회 기간 이후에도 상시 운영이 가능해, 상설 전시관 운영을 위한 별도 비용 없이 최대 5배의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부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색상·재질 직접 고르는 'LG 오브제 컬렉션'

공간 조화 이룬 인테리어가전 론칭
예술가, 홈가든 등 콘셉트도 마련

LG 오브제가 돌아왔다. 가구 대신 공간 중심성을 극대화하고 디자인을 차별화해 시장 변화에 맞대응할 수 있게 됐다.

LG전자는 22일 온라인을 통해 'LG 오브제 컬렉션'을 처음 공개했다. 배우 유연석과 성유리가 함께 제품 소개를 맡았다.

오브제컬렉션은 2018년 론칭했던 오브제콘셉트를 공간 인테리어를 확대하는 브랜드로 확장한 것이다. 집안 어느 곳에서든 가전을 조화롭고 일체감 있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다양한 색상과 재질이 핵심이다. 페닉스와 스테인리스, 글라스와 메틀 등 재질과 색상을 정수기를 제외한 제품 전반에 조합할 수 있다. 냉장고의 경우 조합 숫자가 145개에 달한다.

현대글로벌비스, 현대重과 수소운반선 개발

공동개발 첫 사례... 협력 큰 의미

현대글로벌비스가 국내 조선사와 협력해 대형 액화수소운반선 개발에 첫 발을 내디뎠다. 수소운반선을 국적 선사와 조선사가 공동 개발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글로벌 수소 해상운송 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해운, 조선사가 협력 시스템을 가동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과 공동 개발한 2만㎡급 상업용 액화수소운반선의 기본 설계도면이 세계 최초로 한국선급과 라이베리아 국으로부터 기본 인증(AIP)을 획득했



LG전자 오브제 컬렉션.

/LG전자

LG전자는 다양한 세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고객 조사를 통해 세대별로 선호하는 색상을 찾았다. 색채연구소 미국 팬톤컬러연구소와 오랜 협력도 진행했다.

제품 편의성도 한층 높였다. 예를 들어 광과오븐과 정수기, 식기세척기를 연동하면 광과오븐에서 선택한 레시피에 따라 정수기가 필요한 물을 설정해주고, 통닭이나 스테이크 등 세척이 어려

운 음식의 경우는 식기세척기가 자동으로 불림이나 스팀 등 모드를 제공한다.

인테리어 콘셉트에 따른 세트도 마련했다. LG베스트샵에서 ▲세련된 예술가의 공간에 어울리는 홈 아틀리에 패키지 ▲화사한 감성의 공간에 맞는 홈가든 패키지 ▲모던한 안정감의 패키지 등을 제안한다. 연말까지 구매 고객에 최대 200만원 상당 멤버십 포인트 추가 적립 행사도 제공한다.

/김재용 기자 juk@

대중공업그룹의 조선 기술과 현대글로벌비스가 보유한 역대 운항데이터, 수소 공급망 관리 플랫폼이 결합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선박관리 자회사인 지마린서비스와 함께 선박의 크기, 엔진 구동방식, 수소가스 처리방법 등 수소운반선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해 설계에 반영했다. 선박건조에 드는 투자 금액과 운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경제성 검토도 실시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향후 수소 해상운송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현대글로벌비스는 지난달 유럽 대표 해운사인 '월.월.월.월.월'과 '해운환경 변화 공동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양성운 기자 ysw@



SK하이닉스의 첨단 반도체가 언택트 시대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이 멈추지 않도록
 늘 함께 하는 첨단 기술이 있습니다

요즘 대세는 차박... 완성차업계, 캠핑족 겨냥 상품 봇물

코로나 여파 車 숙박 캠핑 증가
업계, 다양한 프로모션 잇따라

르노삼성, 체어·담요 등 심플 제품
쌍용차 티볼리 에어 캠핑패키지
현대차 캠핑카 '포레스트' 선보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시대에 차에서 숙박을 즐기는 '차박'의 인기가 뜨겁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막히며 전국의 캠핑장은 주말마다 캠핑족으로 가득찬다. 최근에는 차박을 즐기는 캠핑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캠핑 관련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이후 '차박하기 좋은 차'에 대한 검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30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차량 구매시 다양한 차박 용품을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은 QM6와 XM3 전용 차박 액세서리를 추가 출시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작년과 비교해 차박에 필요한 액세서리 매출이 30%가량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차박 열풍 전부터 판매해오던 QM6 전



쌍용차 티볼리 에어.

용 에어매트와 카텐트는 작년 대비 각각 4.4배, 33배 증가했다.

지난 6월 출시한 XM3 전용 에어매트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XM3 전용 에어매트는 6월 출시 이후 매달 평균 10% 이상씩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8월에 추가로 선보인 XM3 전용 카텐트 또한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르노삼성은 기존 에어매트와 카텐트에 이어 차박 캠핑을 보다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심플 체어, 심플 테이블, 와이드 담요, 캠핑 행어, 우드 프린팅 텀블러 등 5개 차박 제품을 이달 추가로 출시했다.

국내 완성차 브랜드 중 코로나19 사

태 이전부터 캠핑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쌍용차는 '캠핑=쌍용차'라는 이미지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쌍용차가 지난 2018년 10월 고객 전용 오토캠핑빌리지가 대표적이다. 쌍용 어드벤처 오토캠핑빌리지는 아웃도어 마케팅을 선도해 온 쌍용차가 지난 2018년 10월 국내 최초로 오픈한 '고객 전용 프라이빗 캠핑공간'으로 1년 만에 누적 방문객이 2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1년여 만에 새롭게 출시한 티볼리 에어 구매고객(선착순 1000명)을 위해 캠핑 패키지도 제공하고 있다. 캠



르노삼성 '르노 카 텐트'

핑 패키지에는 ▲다이아몬드 먼타프 ▲커플캠핑체어세트 ▲테이블 겸용 폴딩박스 ▲인디언 담요형 러그 ▲인디언 가랜드 ▲인디언 행어 ▲어드벤처스티커 ▲LED 멀티 랜턴 ▲앵두 전구 등 캠핑에 필요한 장비로 구성됐다.

지난해 단종된 이후 1년여 만에 부활하는 티볼리 에어는 티볼리의 차체를 키운 모델이며 1.5터보 가솔린 엔진을 장착하고, 디자인과 상품성을 개선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대차는 차박 트렌드에 맞춰 캠핑카 '포레스트'를 선보였다. 소형 트럭 포터 II를 기반으로 한 캠핑카 '포레스트'는 편안하고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

최대 4인 가족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포레스트는 2열 승객석에 주행·캠핑·취침 상황별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변 캠핑 시트를 탑재해 내부 공간 활용도를 끌어올렸다. 가변 시트는 주행 중에는 시트, 캠핑 시에는 소파, 잘 때는 침대 용도로 쓸 수 있다.

포레스트에는 캠핑지에서 샤워실, 화장실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겪는 사생활 침해 등 불편을 고려해 ▲독립형 샤워부스 ▲실내 좌변기를 선택 사양으로 적용할 수 있다. 차량 내 각 창문에 커튼이 설치됐다. 포레스트 가격은 4899만원부터 7706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 엔트리 SUV '베뉴'

현대차 '2021년 베뉴', 인기사양 기본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선에
인조가죽시트 등 상품성 강화

밀레니얼 세대의 혼라이프(혼자 사는 삶)를 겨냥한 현대자동차의 대표 엔트리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베뉴'가 상품성과 편의성을 더한 새로운 모델로 출시됐다. 현대차는 22일 상품성을 강화한 '2021베뉴'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2021 베뉴는 고객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인기 사양을 기본화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상품성을 강화했다. 스마트트림(기본 트림)에 고객 선호 사양인 ▲인조가죽시트 ▲앞좌석 열선시트 ▲전동접이, LED 방향지시등이 포함된 아웃사이드 미러를 기본 적용했으며, 스마트스트림 IVT(무단변속기) 역시 기본화했다.

주력 트림인 모던 트림은 ▲온전석 통풍시트 ▲LED 헤드램프를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으며, 최상위 트림인 플렉스 트림도 동승석 통풍시트를 기본화하는 등 고객의 선호도를 충실히 반영했다.

또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기능



2021 베뉴 스마트 트림에 기본 적용된 앞좌석 열선시트

(OTA)과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무선 커넥티비티 기능을 새롭게 추가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강화했다.

여기에 반려동물용 커스터마이징 패키지도 추가했다. 이번 2021베뉴에는 야외 활동에 필요한 ▲컵홀더 토이(1/2열 공용) ▲목줄과 리드줄 ▲포터블 포켓과 멀티파우치 ▲일상 생활용 하네스로 이루어진 '햇 패키지'를 신규 추가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둔 혼족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2021 베뉴 판매가격은 ▲스마트 1662만원(IVT, 무단변속기) ▲모던 1861만원 ▲플렉스(FLUX) 2148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친환경 특허·인증 1000건' 모비스, 장관상

국제환경규제 대응 우수기업 선정

현대모비스가 갈수록 엄격해지는 국제환경 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 및 이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전사 차원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친환경 경영 관련 회사 측이 보유한 특허와 국제 인증 건수도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자동차부품을 글로벌 시장을 공급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2020 국제 환경규제 대응 우수기업'에 선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포상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20 국제 환경규제 대응 엑스포 행사'에서 이뤄졌다.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사 차원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1000여건에 이르는 친환경 경영 관련 특허와 국제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SO14001(환경경영), IHSAS18001(안전보건경영), IATF16949(자동차산업 품질경영) 등 총 150건의 국제 인증을 획득하고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한 디자인, 실용신안, 특허 등도 778건 보유하고 있다.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유해화학물질 성분 분석을 통해 적합성이 확인된 원재료만을 적용하고 제조 과정에서의 오염 요인을 차단한다. 최종 제품에 대

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성분 검사를 통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한다.

최근 현대모비스는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고도화했다. 화학물질정보를 표준화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화학물질이 어느 제품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환경규제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 위험부품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와함께 2018년부터 안전환경품질팀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사 유해화학물질관리 프로세스 구축 TFT를 구성하고, 전사 유해화학물질 관리 표준을 제정하기도 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그룹 '커넥티드 카' 가입자 200만명 돌파

현대자동차그룹 커넥티드 카 서비스 국내 누적 가입자 수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2019년 6월 100만명, 올해 4월 150만명 달성에 이어 6개월만에 200만명까지 넘어섰다.

2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커넥티드 카 서비스는 자동차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차량 제어, 차량 관리 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현대차 블루링크, 기아차 유보,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가 운영

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03년 현대·기아차가 국내 최초의 텔레매틱스 서비스 '모젠'을 출시하며 커넥티드 카 서비스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이후 2012년 현대차가 블루링크, 기아차가 유보를 출시하며 분리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2017년 제네시스가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를 선보였다.

커넥티드 카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원격 제어 ▲안전 보안 ▲차량 관리 ▲길 안내 ▲카페이 등의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CES 2019'에서 2022년 글로벌 커넥티드 카 서비스 가입 고객 1000만명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차종에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탑재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현재 국내를 비롯해 미국, 중국, 캐나다, 인도, 유럽, 러시아 등에서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전 지역으로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수도권 아파트 '거래 빙하기' 지방에서 '뜨뜻한 한채' 찾아 볼까

복선전철·고속도로 등 다양한 교통개발 예고

당진 센트레빌 르네블루 동부건설

전용면적 74·84·99㎡ 1147가구
단지 인근 유·초·중·고교 신설 예정

동부건설이 이달 충남 당진 수청1지구(구 센트럴시티)에서 '당진 센트레빌 르네블루' 74㎡·84㎡·99㎡ 1147가구를 분양한다.

면적별로는 ▲74A㎡ 160가구 ▲84A㎡ 533가구 ▲84B㎡ 284가구 ▲99A㎡ 112가구 ▲99B㎡ 58가구 등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당진 수청1지구는 충남 당진시 중심에 위치한 도시개발지구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을 비롯해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이 구축된다. 특히 당진은 정부의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으로, 전매제한이 없어 이에 따른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당진 센트레빌 르네블루' 인근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신설될 예정이며,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 32번 국도 등이 인접해 타 도시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여기에 당진~천안 고속도로(2025년 예정), 대산~당진 고속도로(2026년 예정) 등의 교통호재가 예고돼 있다.

이밖에 터미널상권, 롯데마트, 당진시청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지역 최초로 커뮤니티 시설에 단지 내 실내수영장은 물론 입주주민을 위한 사우나 시설도 들어선다.

다양한 교통개발도 예고돼 있다. ▲서해선 북



'당진 센트레빌 르네블루'.

선전철(2022년 예정) ▲당진~천안 고속도로(2025년 예정) ▲대산~당진 고속도로(2026년 예정) ▲석문산단 인입철도(2027년 예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충남 당진성모병원이 오는 2023년 말까지 당진수청1지구로 확장 이전한다. 이곳에는 소아 청소년을 위한 전문 치료센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친자연적인 주거환경도 관심사다. '당진 센트레빌 르네블루' 동쪽에는 태백산, 요강산 등이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계림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특화 커뮤니티시설도 주목된다.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도서관, 맘스카페 등을 통해 커뮤니티시설의 완성도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041)355-1300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초역세권에 봉서산·천안천 배산임수 지형

이안 그랑센텀 천안 대우산업개발

전용면적 39~126㎡, 816가구
3·4베이 등 이안 특화설계 적용

대우산업개발은 이달 충남 천안 부창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인 '이안 그랑센텀 천안' 39~126㎡, 816가구를 분양한다. 단지 도보거리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위치해 있고, 이마트, C GV, 로데오 의류타운, 동남구청 등을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안 그랑센텀 천안'은 지하철1호선 봉명역이 가까운 초역세권 단지인 인근에 KTX천안아산역과 천안고속터미널이 위치해 이용이 편리하고, 천안IC를 통한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쉽다. 봉황이 깃든 산에서 유래된 봉서산과 천안천의 배산임수형 지형에 위치해 있고, 쌍용공원과 으름공원, 천안축구센터 등이 가깝다.

단지가 자리한 봉명동 일대는 천안 도심재생 뉴딜사업의 중심축으로 일대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예상된다.

천안시는 원도심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022년까지 총 사업비 약 1조 6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단지 인근에 수도권 이남 최대규모로 신축 예정인 순천향대학교 제2병원도 입지하고 있다.

단지 중심부에 수공간과 야외 무대를 갖춘 커



'이안 그랑센텀 천안'.

뮤니티마당이 조성된다.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테마별 어린이놀이터도 마련된다. 커뮤니티시설로는 입주민의 취미와 건강을 고려한 휘트니스센터와 골프연습장, 키즈카페, 작은도서관,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이안 그랑센텀 천안'은 공간활용도가 우수한 4베이(Bay)와 수납공간을 특화한 3bay 등 '이안(iaan)'만의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단지는 대우산업개발의 특화평면인 '살림착착(주부순환동선)'과 '요리톡톡(주부수납시스템)', '안심든든(침단보안시스템)', '재미톡톡(테마형 단지설계)' 등이 적용된다. 견본주택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15의 29일대에 마련된다. (1600-8042) /이규성 기자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최고층 '랜드마크'

대구테크노폴리스 에미지 더 센트럴 금성백조

아파트 전용 99~152㎡, 894가구
상업시설 '에비뉴스완' 함께 공급

금성백조는 오는 11월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대구테크노폴리스 RC블록에서 주거복합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에미지 더 센트럴(THE CENTRAL) & 에비뉴스완' 99~152㎡, 894가구의 아파트와 연면적 4만2581㎡ 규모의 프리미엄 상업시설인 '에비뉴스완'을 함께 공급한다.

이 단지는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최중심 입지에 지역 내 최고층인 35층 아파트로 지어지는 만큼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단지 바로 앞에는 테크노폴리스 중심상업시설이 위치해 있다.

단지 인근에 서대구역~달성군청~테크노폴리스~대국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대구산업선 테크노폴리스역이 조성될 예정이다.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산업선을 이용하면 향후 테크노폴리스역에서 서대구역이 있는 대구시내까지 20분 대로 이동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북현동IC가 인접해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한 광역이동이 수월하다.

단지 동측으로 비슬산을 조망할 수 있으며 단지 서측에는 축구장 약 9배 면적 크기인 약 6.4만㎡ 규모의 중앙공원이 위치해 청정 자연을 누릴 수 있다. 또 과학관공원, 비슬구천공원 등도 가깝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에미지 THE CENTRAL & 에비뉴스완'.

차별화된 명품 설계를 도입,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최초 5·6베이(bay) 설계와 펜트하우스 설계를 도입한다. 또 단지 내에는 전세대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축구장 1.5배 크기의 중앙공원을 배치해 개방감이 탁월한 단지로 조성한다. 특히 단지 내에는 금성백조의 복합 테마스트리트몰 '에비뉴스완'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입주주민들의 원스톱 라이프까지 가능하다. 복합 테마스트리트몰이란 최근 수도권에서 유행하고 있는 스트리트몰에 앵커시설 및 운영시설을 강화한 최신 트렌드의 상업시설을 의미한다.

또 센트럴파크, 브로드웨이, 소호스트리트, 브루클린브릿지 등 뉴욕 맨하탄을 모티브로 총 5개의 이국적 테마를 적용한 아름다운 건축 디자인을 선보여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아파트 1899-2006, 상업시설 1899-0023)

/이규성 기자

풍부한 생활 인프라... 규제 피한 마지막 단지

부산 서면 비스타동원 ㈜동원개발

전용 59~84㎡ 806가구 중 210가구
4베이 판상형 구조에 다양한 개발 호재

㈜동원개발은 이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 2동 573의 89 일원에 들어서는 '서면 비스타동원' 59~84㎡ 806가구 중 21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4베이(bay) 판상형 구조로 지어지는 데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면으로 구성된다.

'서면 비스타동원'은 지하철과 다수의 도로망이 잘 구축돼 있다. 우선 부산지하철 2호선 가야역과 동의대역을 동시에 이용 가능한 더블역세권 단지다. 또 가야대로와 동서고가로, 백양터널, 수정터널을 통해 부산 및 타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대형 편의시설과 공원, 관공서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롯데백화점(부산본점), 홈플러스(가야점), 서면 중심상권, 개금·서면 메디컬 스트리트가 가깝다. 부산시민공원과 개금테마공원, 감고개공원, 백양산 등 녹지가 인접해 있다.

단지 인근에 다수의 개발 호재를 품고 있다. 우선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이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교통망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 사업을 통해 창원 마산과 부산을 오가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에서 1시간가량 단축이 가능하다.



'서면 비스타동원'.

단지 인근으로 사상~해운대를 잇는 대심도 고속도로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부산 동·서도심을 지하 30~60m의 대심도 도로로 잇는 개발 계획으로 지난해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서면 비스타동원'은 부산에서 전매제한 규제를 피한 사실상 마지막 분양 단지이다. 동원개발은 지난 9월 21일 부산진구에 분양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접수를 완료했으며 다음 날인 2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하루 차이로 전매 규제를 피한 단지가 됐다.

따라서 '서면 비스타동원'은 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다른 단지와는 달리 계약 6개월 이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게다가 중도금 무이자 와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한다. (051)914-0200 /이규성 기자

올해 마지막 공모대어 출격 글로벌 종합 식품기업 도약

IPO 간담회

교촌에프앤비

외식 프랜차이즈로는 첫 직장장
3년 연속 본사 매출 3000억 이상

올해 마지막 공모대어(大魚)로 꼽히는 교촌에프앤비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코스피 직장장은 외식 프랜차이즈로는 처음이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우회 상장으로 증시에 발을 들였다.

소진세 교촌에프앤비 회장은 2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촌의 비전인 글로벌 종합 식품 기업으로 도약하는 제2의 성장에 뜻깊은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며 상장 일정을 공개했다.

교촌에프앤비는 내년 30주년을 맞이하는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일반 대중들에게 교촌치킨을 판매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다. 천연 재료 기반의 소스 등 고품질의 원재료를 사용해 두꺼운 소비자층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치킨 업계에선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결과 3년 연속 본사 매출 3000억원 이상의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6개국에 진출해 해외 사업영역을 넓혔다. 추후 중동·대만·호주·터키 등에 새롭게 진출해 25개국, 진출을 노리고 있다.

황학수 교촌에프앤비 사장은 “소비자와 가맹점 중심의 경영을 통한 브랜드”를 교촌의 핵심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가맹점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첫번



소진세 교촌에프앤비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째 목표다.

그는 “각 가맹점의 영업 상권을 철저히 보호해 꾸준히 가맹점 평균 매출액 1위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교촌에프앤비의 지난해 매출액은 3801억원, 영업이익은 394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156억원, 153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매출만 놓고 보면 지난해보다 16% 증가했다. 황 회장은 “매장수 증가, 중대형 매장 전환, 신제품 효과, 배달 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15% 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으로도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가맹 사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규 가맹점 개설과 매장 컨셉트 고도화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1234개인 가맹점을 회사 측은 2025년까지 1500개 이상으로 늘리고 매장 리모델링을 통한 품질 안정화와 배달 시간을 단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매출은 7700억원, 영업이익은 1000억원까지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송태화 기자 alvin@

‘아이폰12’ 오늘 예판... 30일 정식 출시

이통사, 각종 혜택 제공



아이폰12 단말 이미지./ SKT

애플의 첫 5G 아이폰인 아이폰12가 23일 예약판매를 거쳐 30일 국내 출시된다. 이통통신사들은 각종 혜택으로 고객 유치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출시일인 30일 0시 수도권 거주 고객에게 새벽 배송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T다이렉트샵에서 아이폰12를 예약하고 ‘바로도착’ 서비스를 신청하면 선착순 1000명까지 새벽 배송을 받을 수 있다.

또 T다이렉트샵에서 교통카드 기능이 적용된 티머니 스티커 카드를 무료로 준다. 티머니 스티커 카드는 티머니가 공식 출시 예정인 제품으로, SK텔레콤 아이폰12 고객에게 먼저 단독 제공한다.

SK텔레콤은 아이폰 분실, 파손을 우려하는 고객을 위해 뉴T아이폰케어로 분실·파손(월 1만5000원)과 파손(월 1만1000원)을 모두 보장하며, 기존 상품에서 보상 횟수를 늘려 3년간 6회를 보장한다. 아이클라우드 저장공간 50GB를 무료 제공한다.

KT는 애플과 제휴를 통해 ‘KT 애플

케어팩’을 출시한다. 애플케어 서비스(액정 파손 시 4만원, 기타 파손 시 12만원 자기부담금)와 아이클라우드 매월 50GB를 함께 제공한다.

KT는 아이폰12 출시 하루 전인 29일 BJ 최군이 출연하는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한다. 초청 고객 100명에게는 30일 오전 7시 아이폰12와 밀키트를 배송한다. 또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한강 세빛섬에서 ‘바이크 스루’ 식당을 선보인다. 이곳에서는 자전거와 식사를 1초당 1.98원에 제공하며, 아이폰12도 함께 체험해 볼 수 있다.

아울러 KT는 통신사 중 유일하게 ‘에어팟 전용보험’도 선보인다. 에어팟 또는 에어팟 프로 분실 및 파손 시 최대 20만원을 보장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일감 몰아주기 통과시 후폭풍 11조 지분 매물로... 증시 혼란

전경련, 소액주주 피해 눈덩이 우려
10.8조, 기업 시가총액의 9.1%
계열사 간 거래 축소 사실상 불가능

(매각 주식가치 상위 5개 기업 현황)

/전국경제인연합회

구분	보유지분율	목표지분율	매각주식수	매각 주식가치 (A)	시가총액 (B)	비중(A/B)
1 A사	75.00%	50.00%	19,578,315주	3조346억원	12조1386억원	25.0%
2 B사	28.59%	19.99%	6,096,430주	1조2040억원	14조80억원	8.6%
3 C사	29.10%	19.99%	16,027,423주	1조1572억원	12조6979억원	9.1%
4 D사	29.99%	19.99%	3,753,741주	7489억원	7조4813억원	10.0%
5 E사	71.86%	50.00%	25,329,561주	7422억원	3조3947억원	21.9%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시 10조8000억원 규모의 지분이 주식시장에 풀려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조항 통과 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30% 보유한 상장사, 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신규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총수 일가가 상장사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거나 규제 대상인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이하로 낮추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 규제 대상으로 포함된 56개 상장사가 팔아야 할 지분의 총가치는 10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이는 이들 기업 시가총액의 9.1%에 해당한다.

전경련은 모회사 지분이 75%인 A사의 사례를 들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다. A사는 개정안 통과 시 자사 지분을 시가총액의 25%만큼 처분해야 하고, 매각 주식 가치는 3조원이 넘는다고. 또 대량의 지분을 일시에 매각할 경우 주가 변동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현대글로벌비스는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자 2015년 1월 13일 총수 일가의 지분 매각을 시도했는데 이날 주가는 15% 급락했다.

전경련은 56개 상장사의 전체 매출에서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8.7%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계열사 간 거래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후 1년간의 규제 유예 기간에 거래처를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기업이 제품의 효율적 생산·판매, 안정적 공급선 확보 등을 위해 계열사 간 거래를 하지만 이에 대해 무리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삼성생명은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했지만, 개정안으로 위탁이 제한될 경우 보험료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러한 이유로 자회사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위탁을 일감 몰아주기로 비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힌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KAI, 중앙119구조본부와 수리온 소방헬기 계약

소방헬기 2대 453억원에 계약



2018년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납품된 국산 첫 소방헬기 한라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수리온 소방헬기를 추가 납품하게 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21일 중앙119구조본부와 수리온 소방헬기 2대를 453억원에 계약했다고 22일 밝혔다. 납품은 2022년 10월까지이며, 호남119특수구조대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에 배치된다.

수리온 소방헬기는 다목적 헬기로 개발된 수리온을 수색·구조, 응급환자 이송, 화재 진화, 수송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조한 헬기다. 2015년 제주소방, 지난 6월 경남소방에

양119구조본부가 성능과 안전성, 후속 지원능력 및 교육훈련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 수리온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계약된 수리온에는 산악·해상 전방위에서 안전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각종 최첨단 항전시스템과 임무 장비들이 장착된다. 12인치 대화면 시현장치와 터치스크린 방식의 컨트롤러가 적용된 최신 통합항전장비가 적용되고, 4축 자동비행조종장치, 기상레이더, 철탑·고압선 정보가 제공되는 한국형 3차원 전자지도, 해상비행을 위한 비상부유장치 등이 탑재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KT, 학원 교육 디지털화 나선다

‘세계로시스템’과 사업협력 MOU
학원관리 솔루션 연동·기능 고도화

등을 통한 기능 고도화 ▲학원대상 패킹 상품 개발과 마케팅 ▲교육 관련 빅데이터 사업협력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KT는 학원관리 솔루션 업체 세계로시스템과 ‘학원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협력’ MOU를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온라인 비대면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열린 이번 협약식엔 민혜병 KT 기업사업전략본부장과 진병식 세계로시스템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클라우드 기반의 화상교육 서비스 구축 및 출시 ▲KT 통신서비스와 학원관리 솔루션 연



22일 오전 KT 온라인 비대면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열린 ‘학원 교육 디지털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민혜병 KT 기업사업전략본부장이 진병식 세계로시스템 대표와 MOU를 체결하고 있다. /KT

서 간편 접속과 인증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또 KT 클라우드를 통해 수업 자료를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으며, 강의 영상을 끊임 없이 송출한다. /김나인 기자



2020 한국품질만족지수
가정용가구 부문 9년 연속 1위

표정있는가구 — **에 몬 스**

1위선정 · 9년연속

2020 한국품질만족지수 선정

5만 5800명의 제품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전문가 조사
한국표준협회(KSA) 주최



에몬스가구
전속모델 전도연

9년 연속 1위 수상기념 세일

~11.30(월)까지 / www.emons.co.kr 참조



 **에 몬 스 가구**

구글 2면

국회,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속도 “구글 독점지위 막자”

구글 ‘앱 통행세’ 칼 빼들까

구글, 수수료 30% 부과하기로 밝혀
여야, TF 구성... 통합조정안 합의
“글로벌 기업 대항에 힘 보태야”



2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내일 23일 국정감사 종료 이전에 법안소위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저와 여야 간사의 합의 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를 인상에 대해 많은 국민이 격정하고 있다”며 “합의된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글로벌 기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29일 게임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모

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변화된 정책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1년 10월부터 적용된다. 구글은 국내 콘텐츠업체의 반발을 의식해 향후 1년간 1억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에 여야는 지난 7일 국정감사 기간에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통합조정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과방위 실무 TF는 조승래·한준호·홍정민 민주당, 박성중 국민의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을 통합·조정하고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미국 법무부가 20일 구글의 경쟁자 시장진입을 막는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년만에 대형소송... 美 “구글 갑질 안돼”

국내외서 시끄러운 구글

美 법무부 “소비자 선택권 줄어”
애플과 상호협력 관계... 시장 독점
안드로이드 OS에 선택제·삭제불가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MS) 소송 이후 20년 만에 대형 소송으로 주목 받고 있다.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구글이 검색 및 검색광고 영역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소장을 냈다.

구글이 자사 앱이 선택제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으며,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배분 계약을 통해 타사 앱의 선택제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구글과 애플과의 관계에도 주목했다. 양사가 겉으로는 경쟁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독점해왔다는 것이다. 구글은 자사 앱이 선택제된 상태에서 애플의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등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애플에 연간 80억 달러(약 9조760

억)에서 120억 달러(13조6000억 원)를 제공했다. 이는 애플 수익의 15~20%에 달하는 거액이다.

법무부는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다른 업체들이 구글과 경쟁이 불가능했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는 구글 앱이 선택제됐을 뿐만 아니라 삭제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 대변인은 “소비자들이 구글 사용을 강요받거나, 대안이 없어서 구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선택한 것”이라며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은 큰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미 법무부가 이 소송을 1년 이상 준비해왔고 소송 결과에 따라 인터넷 기업의 판도에 중대한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소송이 진행된 이후 미국

정부가 구글에 회사 분할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앞서 2000년 MS도 웹 브라우저 끼워팔기 혐의로 미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에서 회사분할 명령을 받았지만, 당시 MS 창립자 빌 게이츠가 CEO 자리에서 물러나며 회사 분할을 막았다.

국내에서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와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구글이 내년부터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다.

구글이 자국 정부로부터 소송에 휩싸이면서 국내의 대응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22일 “자국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도 이렇게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사업자도 아닌 해외사업자인 구글로부터 불공정한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을 요구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구글의 인앱결제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인도에서는 구글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자 구글이 수수료 확대 시기를 6개월가량 늦춰주기도 했다. /구세윤 기자 yuni2514@



이노비즈협 ‘한-러 혁신플랫폼’ 스타트업 서밋 이노비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과 지난 19일부터 21일 까지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한-러 혁신플랫폼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한-러 혁신플랫폼은 2018년 6월 스타트업 교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기술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간 합의를 거쳐 추진하게 됐다. /이노비즈협회

포스코인터내셔널, 수입 밀 국내 최초 반입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터미널 이용
곡물 안정적 공급체계 확보 박차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국내 최초로 해외에 자체 보유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터미널을 통해 사료용 밀을 국내로 처음 들여왔다. 이에 따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국가식량안보’의 구체적 성과를 거두고, 곡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확보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2일 우크라이나에서 총 6만8000톤의 사료용 밀을 곡물 수입업체 농협사료와 함께 국내로 들여왔다고 밝혔다. 인천항을 시작으로 국내 3개 항에서 하역했다. 이 가운데 4만1000톤은 회사가 투자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터미널에서 수입한 물량이다.

이번 식량 수입은 국내 기업이 확보한 최초의 해외 곡물 수출터미널을 통해 양질의 사료용 곡물을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곡물 수출터미널은 곡물을 선적하기 전에 저장하는 일종의 창고다. 수출터미널이 있으면 가격이 낮을 때 곡물을 비축했다가 수요가 급증할 때 선적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코로나19로 주요 식량 수출국들이 자국 식량 비축에 집중하고, 해외 메이저 곡물회사들이 국제 곡물 시장을 장악하는 등 세계 식량 시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



포스코인터내셔널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터미널에서 사료용 밀을 선적하는 모습.

황에서 농협사료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으로 사료 시장의 고정거래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밀 수요량은 343만톤으로, 이중 자체 생산량은 2만톤 안팎에 불과하다. 나머지 물량은 모두 수입에 의존한다. 이중 식용은 255만톤이며, 사료용은 곡물 가격 변동에 따라 옥수수 등 다른 곡종으로 대체 구매하는 실정이다.

포스코는 이번 사료용 밀 공급을 계기로 자체 터미널을 통한 밀, 옥수수 수입을 확대해 안정적인 국가 곡물 조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은 2018년 100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식량 사업 육성을 선정했다. 이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9월 세계 최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에 국내 기업 처음으로 연간 250만톤 규모의 곡물 출하가 가능한 터미널을 준공했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과 중동·북아프리카 및 아시아지역에 옥수수, 밀 등을 판매해왔으며 우크라이나를 곡물 트레이딩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식량 사업은 쌀을 시작으로 밀과 옥수수, 대두(콩), 보리 등 주요 곡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2015년 84만톤이던 교역량은 올해 약 750만톤으로 증가했다.

주시보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은 “국제 곡물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식량 사업을 더욱 육성해 해외농업자원을 안정적으로 국내로 조달하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식량안보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중진공, 中 中 中 온라인 해외진출 돕는다

입주사 20곳, 현지 바이어와 화상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달 30일까지 미국 뉴욕과 중국 상하이 창업특화BI 온라인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해외진출 사절단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진공의 수출BI(비즈니스인큐베이티)는 미국, 중국 등 12개국, 20곳에 운영하고 있는 해외거점으로 사무공간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수출마케팅, 법률자문, 통·번역 등 수출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중진공은 창업특화BI 프로그램을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해 코로나19로 입출국이 막힌 상황에서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월 뉴욕·상하이·호치민 창업

특화BI 온라인 입주기업 35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기업과 업종별 맞춤 보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절단에는 뉴욕·상하이 창업특화BI 입주기업 20개사가 참여한다. 소비자·헬스케어·IT 분야에 특화된 입주기업들은 뉴욕·상하이BI가 직접 현지에서 발굴한 바이어, 전문가 등 60여개사와 화상회의로 만난다.

미국과 중국 현지 대형 유통업체, 산업·원자재 업체, 창업투자사 등 다양한 분야의 바이어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입주기업 사업계획과 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매칭을 진행하여 단순 상담이 아닌 수출, 투자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승호 기자 bada@



박근혜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분류인력 4000명 증원 ‘시간선택근무’ 업무량↓

CJ대한통운 재발방지대책

박근혜 대표, 기자회견

“기사님,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 경영진, 상황 엄중히 받아들여 모든대책 확실히 시행토록 할 것”



박근혜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택배 업무로 고생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택배기사님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 8층. 박근혜 CJ대한통운 대표가 침통한 얼굴로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올해 상반기 기준 50.4%의 택배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로 최근 택배기사 사망 등 업계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들께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표는 “CJ대한통운 경영진 모두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재발방지 대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늘의 모든 대책은 대표이사인 제가 책임지고 확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자들을 보호하기위한 종합대책을 내놴다.

우선 택배기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의 택배분류인력 1000명을 포함해 총 4000명을 택배터미널에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회사측은 이를 위해 매년 500억원 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정태영 택배부부장(부사장)은 “지원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면 택배기사들은 오전 업무 시작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시간선택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택배가 몰려 물량이 초과되는 경우엔 기사 3~4명이 팀을 이뤄 물량을 분담해 개별 기사에게 부담이 쏠리는 것을 막는 ‘초과물량 공유제’ 도입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내에 택배기사 100%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전체 집배점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택배 분류 자동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자동분류장치인 휠스터에 이어 2022년까지 소형상품 전용분류장비(MP)를 추가로 구축한다. 회사측은 현

재 처리하는 물량 가운데 소형택배화물 비율이 90% 정도여서 MP를 설치할 경우 전체 작업시간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도 조성키로 했다.

기금은 기존에 지급하던 택배기사 자녀 학자금, 경조금과 별개로 긴급생계 지원, 업무 만족도 제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표는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혁신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택배기사, 물류센터 작업자 등 택배 업무 관련 사망자만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과로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9명이다. 이달 들어서만 3명의 택배기사가 숨졌다.

가장 많은 택배기사가 소속돼 있는 CJ대한통운의 경우 올해에만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에도 서울 강북구에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씨가 지난 8일 배송 업무를 하다 호흡 곤란을 일으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숨진 A씨는 20년 가량 택배업무를 한 경력자로 하루 평균 400여 개의 택배를 배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에도 경북 칠곡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근로자 B씨가 숨졌다. B씨는 올해 나이가 스무살이었다.

또 같은 날엔 (썬한진 소속)의 30대 택배기사 C씨가 자택에서 숨졌다. 서울 동대문 지역에서 배송업무를 했던 C씨는 앞서 동료에게 과중한 택배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긴급 생계지원금 다 준다더니...

무등록점포 상인 ‘엄격기준’에 지원금 포기

코로나 전·후 비교소득 입증못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노점상 매장처럼 월별매출 집계 어려워”

지난 19일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자금’에 대한 현장 접수를 시작했다. 긴급 생계지원자금은 ‘새희망자금’에서 제외된 무등록점포가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엄격한 지원 대상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희망자금에서 제외된 무등록점포 상인들은 긴급 생계지원금 접수를 위해 동사무소 등을 찾았지만 발길을 돌렸다.

휴대전화 본인 인증만을 거치면 바로 신청이 가능했던 새희망자금과 달리 긴급 생계지원자금은 중위소득 75% 이하, 코로나 전후 비교 소득 25%

이상 감소 등을 입증하는 지원 서류가 필요하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데 상인들이 애를 먹고 있다.

지원금액에도 차이가 있다. 100만원을 일괄지급하는 새희망자금과 달리 긴급 생계지원자금은 1인 가구는 최소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이다. 4인 가구 무등록점포만이 새희망자금과 같은 100만원을 지원 받는다.

문제는 무등록점포가 전국 시장 6곳 중 1곳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보인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18년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 총 점포 수 25만개 중 4만3000여 개가 무등록점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발표된 수치는 없지만, 더 늘어났을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무등록점포 상인들의 경우 대부분 지방이나 소규모 비상설 시장에 위치하고 있다. 고령 상인들이 많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실제 무등록점포를 운영하는 상인 유모씨는 “새희망자금 신청도 안 된다고 해서 속상했는데 대신 이걸 준다는 뉴스를 봤다. 그런데, 소득 감소를 입증해야 하지만 우리 같은 노점상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다른 사람들처럼 월별 매출이나 이런 건 잘 집계 안 된다”고 한탄했다.

유 씨의 말처럼 무등록점포의 경우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고 있어 월별 매출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현재 월 소득과 과거 월 소득을 각각 파악해 감소 여부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정보 공개, 국제동의 얻어야”

이낙연, 도미타 고지 日대사 만나 日 “韓의 2가지 요청 받아들일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와 만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했다. 도미타 대사는 이 대표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도미타 일본대사 예방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며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도미타 대사는 “정부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을 잘 안다. (이 대표의) 두 가지 요청을 받아들일 것”고 답했다. 이어 “IAEA(국제원자력기구)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국제 관행에도 따르는 것이라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도미타 대사가 “앞으로도 한국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겠다”며 한·일 양국 간 교류 및 항공로 운항 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를 희망한 사실도 소개했다. 다만 한·일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출 규제 원인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한·일 교류 재개 등은) 경제적 조치에 관한 이야기인데, 알다시피 그 문제는 우리의 강제징용(배상)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라며 “그게 먼저 해결되거나, 따로 해결되거나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일 양국 간 교류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 필요성에는 이 대표

와 도미타 대사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이 대표는 앞서 공개 발언을 통해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나 역사, 세계 질서의 새로운 전개 그 무엇에서 봐도 한국과 일본 양국이 협력하는 길 이외에 대안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대사와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도미타 대사는 “이 대표가 말한 양국 관계의 중요성에 저도 아주 많이 공감한다. 지난달 16일 일본에서 스가 총리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계기에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저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첫 출하 햅쌀 코로나19 의료진에 전달

농진청 ‘알찬미’ 이천병원에 나눠

농촌진흥청은 이천시와 함께 국민 참여로 만든 ‘알찬미’ 햅쌀을 22일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에 전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첫 출하한 햅쌀을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알찬미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 경기도 이천시, 이천농협과 함께 ‘수요자 참여형 품종 개발 연구’로

개발한 고품질 벼다. 경기도 이천시는 오랜 기간 재배해 왔으나 잘 쓰러지고 병해충에 약한 외래 품종 ‘추청벼’를 2022년까지 국내 육성 알찬미 품종으로 100% 대체할 계획이다. 2022년 이후에는 국립종자관리소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종자 생산을 위탁해 안정적으로 알찬미 종자를 공급받아 재배 면적을 6500ha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947ha 면적에서 생산된 알찬미는 ‘임금님표 이천쌀’ 상표로 이달 하순부터 양재동 하나로 클럽, 홉플러스, 온



이용범 농촌진흥청 차장이 지난 14일 충남 공주시 탄천면의 실증시험재배 단지에서 열린 ‘벼 드론직파 수확 연시회’에서 수확한 벼를 탈곡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라인 쇼필름 등에서 본격 출하된다. /한용수 기자 hys@

“국립대 미성년자 참여 논문 458건” 대입 ‘부모찬스’ 논란

2020 교육위원회 국감

나경원 아들 특혜 의혹 집중 추궁
소속 허위 기재 등 질타 잇따라
“아무에게 실험실 빌려주냐” 비판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입시비리 문제와 관련한 공세가 연일 펼쳐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22일 국정감사에서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쟁점이 됐다. 이날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아들의 고교시절 논문 포스터 공동 저자 등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에서 비판을 쏟아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 37개 국립대를 조사했더니 26개 대학에서 458건의 미성년자 참여 논문이 발견됐고, 연구부정 34건, 조사 중이 158건”이라며 “미성년자 연구참여 부정사례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느냐”고 오 총장에게 물었다. 오 총장은 “서울대인 것 같다”고 대답했다.

서 의원이 언급한 해당 통계는 나경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뉴시스

원 전 의원의 ‘아들 특혜’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특혜’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문을 공개하며 다시 불거졌다.

나 전 의원의 아들 김 씨가 고교 시절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 포스터 공동 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여당과 나 전 의원 측은 설전을 벌여 왔다. 여당이 공개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에는 나 전 의원이 교수에 아들들을 부탁했고, 대학원생이 김 씨 대신

포스터 내용을 정리해 학회 발표자로 참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나 전 의원은 김 씨가 제1저자로 쓴 논문이 적격성을 인정받았고, 부탁할 때 의원 신분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감에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나 전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나 전 의원의 부탁 당시 신분과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나 전 의원은 아들 ‘부탁’ 당시 일반인 신분이었으므로 권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

면서 “당시 나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서울대 조빙교수이기도 했다”고 일갈했다.

정청래 의원은 “당시 나경원씨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음에도 논문 저자 표시를 보면 ‘대학원(graduated school)’에 소속돼 있다고 나온다”며 “사실상 공문서인데도 소속을 잘못 적은 것은 잘못이고, 이는 형법 227조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의 아들 김 씨가 서울대 윤모 교수로부터 같은 대학 의대 의공학 연구실을 1개월가량 제공받은 것 역시 특혜라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나 전 의원의 서울대 82학번 동기로,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이로 전해지고 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의 아들이 국제학술대회에 발표하겠다고 하면 서울대가 실험실을 한달 동안 빌려준다거나 대학원생에게 연구 노트를 검토하라고 한다거나 연구비로 발표비용을 대주겠느냐”며 “나경원 씨가 ‘엄마 마음’이라고만 하는데 명백한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과기대에서도 불거진 ‘아빠 찬스’에 대한 질타가 이어

졌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과기대 교수의 아들 A씨가 해당 대학에 편입학해 66학점을 들었는데, 그 중 24학점은 ‘아빠’ 수업을 듣고 모두 A+를 받으며 대학과 대학원에서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장학금을 환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입학 과정에서도 7등이었던 A씨가 2등과 5등 학생을 재치고 편입하는 과정에서 면접위원과의 결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동훈 서울과기대 총장은 “A씨 사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편입학 과정에서 순위가 뒤바뀐 일은 알지 못한다”면서 “2년 전 국감을 통해 ‘상피제’ 관련 제도를 정착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대, 인천대, 한국방송통신대, 서울교대, 서울과기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등 7개 기관에 대한 2020년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대부분 오세정 총장에게 나경원 전 의원 아들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쏠렸다. /이현진 기자 ihj@metroseoul.co.kr

한남대·한양대에리카에 ‘첨단 산단’ 조성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연내 착공, 2022년 조성 계획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모아 추진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한남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 캠퍼스 내 일부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한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교지를 첨단산업단지 조성해 기업입주 공간, 정부의 산학연 협력,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작년 8월 공모에 참여한 32개 대학 중 3개 대학이 선정된 이후, 1년여 만에 첫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 산업단지 2



한남대(왼쪽)와 한양대 에리카의 캠퍼스 혁신파크 조감도.

/교육부

곳이 지정됐다. 두 곳은 연내 착공해 2022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한 곳인 강원대학교는 연내 산업단지 지정이 추진된다.

산업단지 면적은 한남대, 한양대 에리카가 각각 3만1000㎡, 7만8579㎡로 대학과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기존 대학 부지인 자연녹지지역(용적률 100%)을 모두 준

공업지역(용적률 400%)으로 변경해 최대 4배의 밀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국비를 보조해 건축하는 기업임대 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는 각 대학에 2만2300㎡(건축물 연면적) 규모로 2022년 기업 입주율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곳은 업무공간뿐만 아니라 기업 간 교류가 수시로 이뤄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한용수 기자 hys@

신입 4명 중 3명 “입사 석달 내 퇴사 결심”

인크루트 신입사원 대상 설문

결심 이유 1위 상사 잔소리, 업무

대부분의 신입사원이 퇴사고민을 한 가운데, 이들이 퇴사를 결심하는 기간은 입사 후 3개월 전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크루트가 입사 1년차 미만 신입사원 619명을 대상으로 ‘퇴사결심 시기 및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먼저 설문에 참여한 신입사원 가운데 89.5%는 퇴사를 고민해봤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선택)로는 ‘상사 잔소리 및 업무방식’(15.0%)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인관계 스트레스(14.5%) ▲

연봉(13.1%) ▲업무가 적성에 안 맞아서(3.5%) ▲업무강도(9.3%) ▲사내정치(7.5%) ▲워라벨, 근무시간(7.3%) ▲복지, 복리후생(6.6%) ▲인사, 승진(6.2%) ▲진로변경(4.8%) ▲위치, 교통편(3.8%) ▲결혼, 육아(1.4%) 등의 이유가 이어졌다. 했다.

한편 이들에게 퇴사결심은 어느 정도 기간을 기준으로 두는지 물었은 결과 ‘입사 후 3달 전후’(43.2%)가 가장 많았고, ▲1년 전후(25.1%) ▲한달 이내(23.9%) ▲1주일 이내(5.9%) 순으로 퇴사를 결심하는 기간이 집계됐다. /이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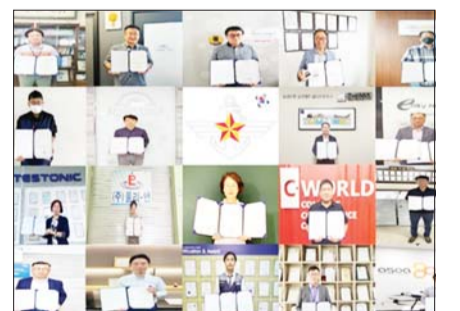
방한복 등 軍 우수 상용품 제품 지정

36개 기업 수여... 판로 확대 지원

국방부는 22일 육군회관에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우수 상용품 적합제품 지정서 수여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201개 기업 258개 제품이 참여했다. 이날 국방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전체 수여 대상 기업 36개 중 대표로 5개 기업만 참여하고, 그 밖의 기업들은 비대면(우편발송)으로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코오롱인더스트리Fnc의 기능성 방한복, 한국쓰리엠의 차량후부 반사지, 유니온라이트의 이동식 투광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 수상 기업 관계자들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지정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국방부

등, 형제파트너의 전기동력운반차, 아이에이치피엠의 충전식예초기 등이 지정서를 대표로 수상했다.

국방부는 군사용으로 적합관정을 받은 품목(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조달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시행 최초로 국방부장관 명의의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 발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형철 기자 captim@

세종대 일자리사업단 ‘엔택트 스튜디오’ 구축

세종대 취업지원처 대학일자리사업단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 강의에서 비대면 강의로 전환됨에 따라 비대면 전용 공간인 ‘엔택트 스튜디오’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학생회관 1층 대학일자리사업단에 구축된 ‘엔택트 스튜디오’는 학생들이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강사의 음성, 물론 교재와 필기 내용까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대형모니터와 함께 강사모니터, 웹캠, 조명, 스마트펜 등의 장비를 설치했다. 이를 활용해 2020년 상반기부터 비대면으로 각종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전문대교협, 온라인 원격연수 공간 개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온라인 원격연수와 오프라인 집합연수를 병행하는 혼합연수 체계(BTS) 구축을 위해 역량개발지원실 내 ‘온라인 원격연수 전용 스튜디오’를 정식 개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온라인 원격연수 전용 스튜디오를 통해 전문대학 교직원의 원격강의 제작과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기반의 교수학습법 등을 익힐 수 있도록 온라인 원격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온라인 원격연수 전용 스튜디오’의 특징을 보면 ZOOM(영상회의 도구)을 활용해



온라인 원격연수 운영 단체사진. /전문대교협

양방향 온라인 원격연수를 진행하고 강연자와 참석자간 실시간 소통과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이현진 기자

천지개벽 청량리! 서울 동북권 중심으로 떠오른다!

급부상하는 화제의 현장으로 가다!

- ▶ 전 세대 복층 오피스텔 설계가 적용돼 높은 층고로 개방감이 우수하고 IoT홈네트워크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집콕 세대에 딱 맞춤
- ▶ 주택자금 조달계획서가 필요없음, 분담없는 자금조달로 탄력적인 부동산 투자 계획을 실현

① 동원건설산업 동원 베네스트 2차분 / 전 세대 복층형 오피스텔



정부는 지난 8월 부동산 3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주택관련 법률을 개정하였고, 국세청은 주택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자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도움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8월 12일부터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때 인산된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취득세를 매길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던 입주권·분양권 등도 포함한다.

국세청이 꼽은 부동산 관련 주요 상담사례 중 첫 번째 사례다.

Q.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돼 2주택자일까?

A.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Q.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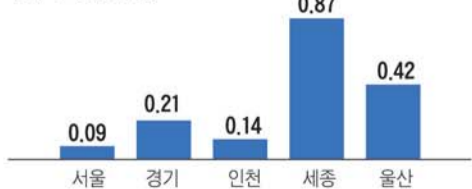
A.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 이상 망서릴 시간 없다! 전셋값, 오르고 또 오르네... 서울 63주째 수도권 57주째 상승

'전세 물건 실종' 탓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아. 전세 수요는 꾸준한데 전세 물건이 귀해지면서 값이 끝없이 오르는 중.

9월 첫주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전주대비, 단위 %



(자료:한국감정원)

전셋값 상승세는 소형이나 저렴한 아파트가 주도했다. 서울에선 주로 강북권이다. 마포구(0.15%)는 아현·공덕·도화동 등지의 인기 단지나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올랐다. 성북구(0.12%)는 길음뉴타운이나 종암동의 신축 단지가 많이 올랐다. 교통, 학교, 도시 기반시설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만 신도시 개발에 뒤처져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은 전통적인 도심이 도시재생의 효과와 잇따른 재평가에 힘입어 유례없는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제로 금리 시대, 아파트 규제 이어지며 소형 오피스텔 동대문 베네스트 2차 반사 이익

제로금리 기조 국면 장기화로 수익형 부동산의 반사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금리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금융권 상품 대신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목표로 하는 이들이 급증한 것이다. 특히 입지 조건 개발 호재가 뛰어난 오피스텔임대 투자의 인기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종전 0.75%에서 0.25%p 낮춘 0.5%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3월 1.25%였던 기준금리를 0.75%로 내리면서 사상 첫 제로금리 시대를 연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에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시선을 돌리는 투자자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마저 이어지면서 아파트 겸 투자 대신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의 수요층을 더욱 두텁게 만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갭투자 방지·범인 소유 부동산 세금 강화 등의 규제책을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지난 7월에는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6%의 종부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 등을 인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에 규제가 쏟아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풍선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수익형 부동산 거래량 증가세는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오피스텔을 비롯한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총 15만6,0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기록인 14만 4,200건 대비 8% 이상 늘어난 수치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 소멸 위기, 월세 임대수의 보장하는 오피스텔은 함박웃음

수익형 부동산의 미래 가치 향상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임대차 3법'을 꼽을 수 있다. 지난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임대차 3법의 핵심 사항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로 전월세신고제의 경우 오는 2021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환경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이 리스크로 꼽힌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임대시장의 가장 큰 변화로 부동산 시장 내 전세매물 품귀 현상을 언급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며 전세 니즈가 증가했으나 양도세 및 비과세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등의 요인 때문이다. 게다가 재건축 2년 실 거주 의무 등도 포함돼 임대인이 실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져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 게다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지 않고 오르고 있는 추세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다섯째 주(31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09

공실률은 낮고 수익률은 높은 핫플레이스 동대문구

% 상승했다. 이는 무려 62주 연속 상승한 수치다. 전세 물건 부족 및 가격 상승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존 전세집에 눌러앉은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전세가 품귀를 빚고 가격도 계속 오르는 추세라는 게 현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결국 월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신고의무가 없어 자금 조달에 얽매이지 않고 탄력적인 부동산 투자 계획을 실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5,3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3% 증가했다. 지속되는 전세난, 21차까지 이어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이어진 가운데 오피스텔은 대출, 세금규제, 청약제도 등 다방면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을 갖췄다.

주택자금 조달계획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역시 오피스텔 투자가 갖는 매력이다. 정부는 실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 등 준주거주택이나 상가 등은 신고의무가 없다. 따라서 자금 조달에 얽매이지 않고 탄력적인 부동산 투자 계획을 실현할 수 있다.

GTX-B/C 2개 노선 경유에 도시재생 뉴딜사업까지 청량리 일대 2차 미래 가치 급등 기대!

동대문 베네스트 2차가 더욱 주목받는 것은 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개발 호재 때문이다. 서울 청량리 일대에 조성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청량리동·회기동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서울에서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 도시를 살리는 작업이다. 유형에 따라 중·대규모의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과 소규모의 일반근린형, 주거정비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등이 있다. 서울 청량리와 회기동 일대는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으로 본격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과학기술계와 함께 홍릉 일대(49만 7000㎡)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 대상으로도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4,859억 원 가운데 2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바이오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시설은 '서울 바이오 허브'다. 창업 지원공간, 바이오 연구·실험공간, 글로벌 진출 지원공간, 지역주민 열린공간 등 4개 동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1,689억원을 투입해 내년 완공 예정이다. 이외에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홍릉 바이오헬스센터, 홍릉 R&D 지원센터, 지원전략사업 지원주택 등이 포함됐다.

동대문구 내 소형 주거시설의 경우 매물 및 신규 공급 물량 희소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따른 배후수요 강화를 전망 할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의 교통 개발 호재도 눈길을 끈다. 우선 개통 이슈와 더불어 청량리역 GTX-B(송도-청량리-남양주)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이다. 여기에 C노선(양주 덕정-청량리-수

원)이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들 노선이 개통되면 청량리-여의도 구간이 약 10분, 의정부-강남 삼성 구간이 약 16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생활권의 확대와 시간 단축이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파급력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동대문 베네스트 2차 "1인 가구 특화된 주거 설계로 나홀로 세대 마음 훈디다"

동대문 베네스트 2차의 전용면적은 A타입 21.9㎡(71실), B타입 21.27㎡(90실), C타입 29.22㎡(15실), D타입 35.83㎡(15실), E타입 58.28㎡(15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A타입의 경우 1인 세대에 딱 맞는 효율적인 공간 설계가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B타입은 신개념 주거 트렌드를 적용해 도시적인 감성이 두드러지도록 설계했다. C·D타입은 실속과 여유가 공존하는 스마트 설계로 실거주층 니즈를 충족시킨 것이 강점이다. E타입은 희소성 높은 3Bay, 2room 구조로 넓은 공간, 쾌적한 거주 환경을 자랑한다. 특히 환기 및 통풍이 우수한 소형 오피스텔 사례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전 세대 복층 오피스텔 설계가 적용돼 높은 층고로 개방감이 우수한 것이 강점이다. 복층형 오피스텔의 경우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개방감, 공간 활용성 등으로 선호도가 높다. 이는 공실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이기도 하다. 여기에 다양한 특화 수납공간 및 불박이장, 최신 트렌드에 맞는 혁신 평면 설계 등도 돋보인다.

단지 인근에 자리한 다채로운 생활 편의 시설도 주목할 요소다. 롯데백화점, 비트플러스, 동대문 패션타운, 정릉천, 청계천, 대형마트(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전통시장(약령시장, 경동시장), 고려대 안암병원, 우신향병원, 시립동부병원 등이 가까워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동원 베네스트 2차 분양홍보관은 방문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예약 후 방문 시 대기 필요 없이 바로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방문 예약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증정된다.





LG전자 노조,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에 감사품
 LG전자 노동조합이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에 다시 한 번 감사사를 전했다. LG전자 노조는 19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협회'에서 생존 참전용사 120여 명에게 생활지원금과 건강식품 등을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양승환 LG전자 에티오피아지점장(왼쪽)과 에티오피아 참전용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전자



LG CNS, 비대면으로 청소년 AI교육 앞장
 LG CNS '코딩지니어스'가 비대면으로 청소년 인공지능(AI) 교육을 강화한다. 올해 코딩지니어스는 일명 'AI지니어스'로 불린다. AI를 집중적으로 교육하기 때문이다. LG CNS는 올 한해 40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AI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해 2500명 보다 60% 늘어난 수치다. LG CNS 코딩지니어스 강사들이 학생들에게 비대면 실시간 강의를 하는 모습. /LG CNS



우리금융, 디지털혁신 조직 '레드팀' 출범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1일 주요 그룹사 디지털·IT 부문 실무 담당자로 구성된 디지털혁신 조직 '레드팀(Red Team)'을 신설하고 출범식을 가졌다. 디지털혁신 레드팀은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에프아이에스의 디지털·IT부문에서 우수한 능력과 실무 경험이 검증된 차장 및 과장급 직원들로 선발됐다. 출범식에 참석한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가운데)이 레드팀(Red Team)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현대백화점그룹, 순직 경찰관 자녀 지원 '대통령 표창'
 현대백화점그룹이 공무 중 상해를 입거나 순직한 경찰관 자녀들을 대상으로 10년간 학자금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제75주년 경찰의 날' 유공 정부포상에서 '순직·공상(公傷) 경찰관 지원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22일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장호진 현대백화점 기획조정본부 사장(왼쪽서 두번째)과 김창룡 경찰청장(왼쪽서 세번째)이 '순직·공상 경찰관 지원 부문 대통령 표창' 전달식을 마친 뒤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인사

◆KBS △제주방송총국 편성제작국장 김정중
 ◆경기 광주시 △행정지원과장 이강건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세정과장 강신원 △노인장애인과장 석복국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관광과장 최정환 △안전총괄과장 강수호 △건설과장 최영수 △도로관리과장 한용우 △교통행정과장 이용태 △도시개발과장 임세진 △미래도시사업과장 유영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중기 △오포읍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오포읍 안전도시과

장 김진구 △곤지암읍장 이용호 △쌍령동 개청준비단장 박성영 △송정동 개청준비단장 남기태 △광남1동 개청준비단장 서방원

부음

▲이상보씨 별세, 이훈승(포스코인터내셔널 자문역)·이사라(서울과학기술대 명예교수)씨·이숙영(중앙대 명예교수)·이화익(이화익갤러리 대표)씨 부친상, 이이정씨 시부상, 정진홍(서울대 명예교수)·김용수(꿈의교회 담임목사)씨 장인상=21일 오후 5시, 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3일.

수험생 피로회복과 건강관리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수험생들의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학업에 매진해야 할 수험생들이 온라인 수업에만 의존하다 보니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면역력 관리에도 비상이 걸린 것.

특히 아침저녁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 나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면역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 몸은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나 떨어지기 때문에 수능일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면역력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이때 자녀가 심리적 압박감과 수면 부족 등으로 만성피로에 시달리거나 집중력 저하, 식욕부진,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면 집중력 강화와 원기회복, 체력보강에 도움이 되는 보약을 복용하는 것도 좋은 대

안이 될 수 있다. 한의학에서 수험생 대표 보약으로는 총명탕, 공진단, 경옥고가 있으며, 쌀쌀해진 날씨로 몸이 한기가 들고 약간의 근육통을 동반한 초기 감기라면 쌍화탕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반면 체질과 관계없이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강에 좋은 보약을 찾는다면 공진단과 경옥고가 효과적이다. 먼저 '황실의 명약'으로 알려진 공진단은 집중력 향상, 기혈보충, 보혈작용, 원기회복 능력이 뛰어나며 체질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복용할 수 있다. 다만 공진단은 사향의 성분과 함량에 따라 효능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안전성을 인정한 제품인지, 식품용 녹용이 아닌 의약품용 녹용을 사용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구매에 앞서 집중력이나 체력보강, 면역력 강화가 필요한 수험생이나 단기간에 빠른 회복이 필요하다면 원방공진단을, 고가의 비용이 부담된다면 사향 함량을 낮춘 실속공진단을 구매하면 된다. 또한, 면역력 저하로 감기에 자주 걸리고 체력이 허약한 편이라면 경옥고

가 좋다. 경옥고는 지황, 꿀, 인삼, 복령 등을 배합한 처방으로 한의학에서 정(精)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골수를 돕고 근골(筋骨)을 튼튼하게 해 모든 병을 예방하는 데 사용되는 처방이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경옥고는 '근골을 튼튼히 해 백 가지 질병을 미리 막아 주고 흰머리를 검게 하고, 빠진 치아를 다시 나게 하며, 기운이 넘쳐 걸음이 말이 달리는 것처럼 빨라진다'고 할 정도로 우수한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

만일 당약 복용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체질에 관계없이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보약을 찾는다면 환 형태로 빚은 총명공진단을 추천한다. 원방공진단에 총명탕과 심신을 안정시키는 우황을 가미한 총명공진단은 기력회복과 집중력 강화, 뇌혈류 증가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 복용에 앞서 평소 소화불량이나 위장질환, 대장질환(변비, 설사) 등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전문 한의사의 도움을 받아 소화기부터 치료한 후 한약을 복용해야 소화도 잘 시키고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입구정 대자연한의원 원장

신한은행, E1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맞손

그린뉴딜 연계 사업 공동개발 MOU

신한은행은 지난 21일 E1과 '그린뉴딜 연계 신재생에너지사업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E1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E1과 관계사가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금융자문주선 및 리파이낸싱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미래성장산업인 그린뉴딜 관련 산업육성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또 신한은행이 자문 및 주선하는 그린뉴딜 관련 사업을 E1에게 우선적으로 참여를 제안해 전략적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그린뉴딜 관련 주요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최



'그린뉴딜 연계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양해각서 체결식'을 마친 후 관계자들과 함께 신한은행 이정우 PF본부장(왼쪽에서 여섯번째)과 E1 김상훈 신사업개발실장(네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초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지붕형 태양광 PF를 주선했으며, 이후 수상태양광 사업, 스텝과 연계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관련 사업분야를 선도적으로 발굴해 시장의 선도적 지위를 확고히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시

중은행 최초로 환경사회책임(ESG)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에 가입했으며, 친환경 전략인 '에코트랜스포메이션 2020'을 선포했다"며 "신한은행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도 선도적으로 부응하며 그린에너지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농심, 푸드테크 유망 스타트업 모집

포스트코로나 시대 음식-기술 결합 12월 4일까지 접수, 총 4개팀 선발

농심이 푸드테크 분야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심 테크업플러스(NONGSHIM TECHUP+)' 명칭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음식과 기술의 결합을 선보일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첫 모집 이후 세 번째 진행이다. 모집기한은 12월 4일까지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주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제안'으로, 비대면, 홈코노미, 헬스케어 등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다.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4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며 내년 2월부터 약 6개월간 본격적인 사업 육성에 들어간다.

최종 선발된 팀은 최대 3억원 상당의 투자금, 사업화 지원금 1500만원, 농심과 사업협력 기회, 업무공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농심 관계자는 "전통 식품산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품, 서비스뿐만 아니



라, 생산과 유통을 혁신할 수 있는 기술과 라이프 스타일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블프·광군제 할인 나서는 유통업계... 소비자 지갑 열린다

신세계 오는 31일 '쓱데이' 지정 26일부터 SSG닷컴서 행사 돌입
롯데 롯데ON 등 7개 계열사 참여
창립 41주년기념 최대 80% 할인
쿠팡·G마켓·옥션 등 이커머스 참여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에 맞춰 11월에 집중됐던 유통업계 할인 경쟁이 벌써부터 뜨겁다. 온·오프라인 채널 모두 발빠르게 할인 행사와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해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진했던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고 이를 연말 쇼핑 시즌까지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세계그룹과 롯데그룹이 계열사가 총출동하는 할인 행사를 전개중이다.

신세계그룹은 오는 10월 31일을 대한민국의 '쓱데이'로 정했다. SSG닷컴은 쇼핑 지원금 100억원과 최대 80% 할인율을 내걸었고, 이마트는 단 하루 동안 1000억원 규모 물량을 50% 할인 또는



롯데백화점 창립 41주년 행사.

/롯데쇼핑

원플러스원(1+1) 행사로 판매한다. SSG닷컴을 중심으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인터내셔널, 신세계TV쇼핑, 까사미아 등 17개 관계사가 행사에 참여한다.

SSG닷컴은 26일 자정부터 쓱데이 행사에 돌입해 포문을 연다.

SSG닷컴 측은 "10월부터 국내 '블

프' 시작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11월까지 추가 프로모션을 잇따라 준비해 연말까지 행사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통합 온라인몰 '롯데ON'을 중심으로 23일부터 백화점, 마트, 홈쇼핑 등 유통 부문 계열사 7곳이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



히든카드도 온라인 플랫폼이 떠오르면서 양사가 전자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나선다. 쿠팡은 11월 1일까지 '미리 블랙프라이데이'를 열고, 삼성, LG, 다이슨 등 국내외 61개 가전 브랜드 노트북PC와 휴대전화, 대형가전 제품 800여 종을 최대 53%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베이코리아는 11월 1일부터 '빅스마일데이' 행사를 전개한다. 빅스마일데이는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과 옥션, G9에서 1년에 두 차례 여는 대규모 할인행사로, 상반기에 9일간 진행된 행사에서는 하루 평균 341만개 상품이 판매돼 이 행사를 시작한 2017년 11월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11번가는 11월 11일 자체 연중 최대 할인행사인 '십일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1번가 관계자는 "11월 십일절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감 또한 최고조로 높아진 상황에서,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이마트, 생굴 50톤 확보... 반값판매 돌입

생산량 줄어 '산지 다변화' 물량확보 250g 3960원... 전년비 43% 저렴



이마트 생굴

/이마트

긴 장마로 생굴 생산량이 크게 감소,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린 이때 이마트가 50톤을 확보해 헛 생굴 판매에 나선다.

이마트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헛 생굴 250g을 3960원에 선보인다. 작년 10월 중순 생굴 250g 판매 가격이

6980원 인 것과 비교했을 때 약 43% 가량 저렴하다.

이마트는 이번 행사를 위해 일주일

기준 역대 최대 물량인 50톤의 생굴을 확보했다. 보통 생굴 시즌이 시작되는 10월 중순, 일주일 판매 물량이 20톤 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평년 대비 2배 이상 많은 물량을 준비한 셈이다.

올해 긴 장마로 인해 생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20년 장마가 역대 최장 기간(54일) 진행됨에 따라 많은 비가 바다로 흡수되었고 바다 속 산소 부족 물 덩어리인 '빈산소수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안다라 '요가 오픈 클래스'

애슬레저 브랜드 안다라가 22일 서울 삼청동에서 플래그십 스토어 '라이프 퍼지티브 스튜디오' 오픈을 기념해 요가 오픈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CJ올리브영, 中소 상생 '즐거운동행' 진행

언택트 품평회 참가기업 접수



[CJ올리브영] 지난 4월 열린 올리브영 '즐거운동행' 언택트 품평회에 참여한 중소기업 관계자가 상품을 설명하고 있다. /CJ올리브영

신진 브랜드 발굴과 판로 지원에 앞장서 온 CJ올리브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팔을 걷어붙였다.

CJ올리브영은 오는 27일까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함께 '즐거운동행' 입점업체 선정을 위한 '언택트(Untact·비대면) 품평회' 참가 접수를 진행한다. 22일 밝혔다.

'즐거운동행'은 CJ올리브영이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전개해온 업계 대표 상생 프로그램이다. 우수한 품질을 갖춘 신진 브랜드를 발굴해 올리브영 주요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에 입점 기회를 제공한다. 상생의 취지를 살려, 판로 지원뿐 아니라 매출 촉진을 위한 마케팅 비용도 적극 지원해 왔다.

CJ올리브영은 올해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을 위해 이번 '즐거운동행' 입점 기회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품평회에서 선발해 시범적으로 입점 운영할 브랜드 목표 수를 상반기 대비 2배가량 늘렸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이 품평회에 참가해 상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모집 안내 플랫폼도 다양화했다. CJ올리브영은 '즐거운동행' 서류모집과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순께 입점 품평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동서식품 '맥심 티오피'

열정 마일리지 프로모션

동서식품이 '맥심 티오피(Maxim T.O.P)'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혜택을 제공하는 '맥심 티오피 열정 마일리지' 프로모션을 23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심플리스무스, 심플리스무스 로스티 등 맥심 티오피 페트 5종 제품 대상으로 진행된다.

제품 라벨 안쪽에 인쇄된 열정코드(난수번호)를 확인한 뒤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입력하면 온라인 스탬프가 적립된다.

총 5개의 스탬프를 모으면 맥심 티오피 제품 1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교환권을 지급한다. 모바일 교환권은 전국 CU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조효정 기자



신세계百 "꿀잠 침실 꾸미기 배우세요"

앱 통해 모든고객에 공개

신세계백화점이 꿀잠 공간꾸미기 법을 고객들에게 알려준다.

오는 23일부터 신세계백화점 생활장르 VIP 고객 8만 6000명을 대상으로 '공간의 기준_숙면 공간 솔루션'이라는 테마로 여러 침구류를 소개하고, 수면 중 몸의 컨디션을 회복시켜줄 노하우 등을 선보인다.

'공간의 기준'은 지난 6월, 신세계가 만든 일종의 카탈로그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링크를 통해 내용을 전달한다. 그림과 사진은 물론, 동영상까지 접목시켜 마치 라이프 스타일 잡지를 보는 것처럼 구성했다.

신세계백화점 앱을 통해서도 모든 고객들이 볼 수 있으며 생활장르 VIP로 선정된 고객들에게는 행사 기간 중 생활장르 구매 시 7%를 할인해준다. 또 구매 금액의 5%를 신세계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는 차별화된 혜택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공간의 기준

최근 잠에 대한 관심이 높고 나에게 꼭 맞는 숙면 환경을 꾸미기 위해 노력하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신세계는 숙면과 관련한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등 공간 별로 제안하고 연관된 상품을 잡지처럼 소개하며 고객들의 눈길을 끈다는 전략이다. /신원선 기자

산부인과 다빈치SP 로봇수술 세계 첫 500례

EUMC 이대서울병원
SEOUL

국내서 두 번째로 로봇기기 도입
문 센터장, SP 로봇수술 세계 1위
난소낭종절제술 등 로봇수술 진행

이대서울병원 로봇수술센터가 세계 최초로 산부인과 분야 다빈치 SP(Single Port) 로봇수술 500례(520례)를 돌파했다.

다빈치 SP 로봇수술은 배꼽을 통해 하나의 절개로만 수술하는 단일공 수술 전용 로봇기계를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이 기기를 도입해 이대서울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1일 이대서울병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산부인과 분야 다빈치 SP 로봇수술 500례 돌파 기념식에는 유경하 이화의료원장,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이선영 전략기획본부장 등 경영진과 문혜성 이대서울병원 로봇수술센터장, 이정훈, 박소연 산부인과 교수 등



박소연 산부인과 교수, 이선영 전략기획본부장, 문혜성 이대서울병원 로봇수술센터장,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이은화 이대서울병원 간호부원장, 이정훈 산부인과 교수(왼쪽부터)가 21일 이대서울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부인과 분야 다빈치 SP 로봇수술 500례 돌파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료진이 참석해 500례 돌파를 축하했다.

이대서울병원 산부인과가 SP 로봇수술분야에서 독보적 위치에 오른 것은 문혜성 로봇수술센터장을 필두로 의료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문혜성 로봇수술센터장은 로봇수술을 1,000례 이상 시행한 국내 최고 전문가이다. 문 센터장은 SP 단일공 산부인과

로봇수술 세계 1위(311건)를 기록하고 있다. 문 센터장은 유착이 심한 난소낭종절제술도 세계 최초로 단일공으로 성공한 바 있다.

문 센터장은 “근종 크기가 7개 이상이거나 10cm 이상이면 단일공으로 수술하기 가장 어려운 근종절제술을 출혈과 합병증 증가 없이 수술에 성공했다”며 “이 같은 결과는 최근 단일공 로

봇수술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기존의 다빈치 시스템에 의한 단일공 로봇 근종절제술이 근종이 3개 이상일수록 시술이 어렵다는 보고와는 상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 센터장은 “다빈치 SP 시스템의 발전 및 로봇수술 술기의 개발이 수술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대서울병원 산부인과에서는 지난해 179명의 SP 근종절제술 환자 중 61명을 분석한 결과, 17명에서 10cm 크기나 7개 이상 갯수에서도 SP 근종절제술이 가능했다.

이대서울병원 산부인과에서는 근종절제술은 물론 난소낭종절제술, 자궁적출술, 자궁내막암 수술 등 다양한 질환에서 SP 로봇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난임 전문의 박소연 교수는 “로봇 단일공 수술은 흉터가 없고 통증이 적어 젊은 여성 환자의 난소 조직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어 난임 환자의 질병치료에 적합한 치료방법”이라며 “SP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추후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동국제약 '마인트롤'과 男무기력증 극복

동국제약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갱년기 남성에게 무기력증 관리의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한 '마인트롤과 함께하는 무기력증 극복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에잇세컨즈

#집콕모델챌린지 캠페인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SPA 브랜드 에잇세컨즈(8SECONDS)가 내달 8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소비자 모델을 선발하는 #집콕모델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에잇세컨즈는 지난해 #8SXME(에잇 바이 미) 콘테스트를 통해 일반인 모델 8인을 선발했으며 이 선발의 경쟁률이 500대 1에 육박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8인은 브랜드 모델로서 에잇세컨즈의 화보 및 영상 콘텐츠에 등장, M Z·밀레니얼 세대 소비자들로부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집콕' 컨셉 아래 비대면 방식으로 소비자가 직접 모델이 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을 내세운 매력적인 가을겨울 시즌 아우터 스타일을 제안한다.

이번 에잇세컨즈의 #집콕모델챌린지 캠페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본인의 특색 있는 데일리룩을 해시태그 #에잇세컨즈 #집콕모델챌린지'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된다.

/원은미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 유럽 3분기 매출 13% ↑

코로나에도 판매실적 '호조'

'베네팔리' 유럽 시장점유율 1위
'플릭사비' 3분기 매출 약 320억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전년 대비 13% 상승한 매출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유럽 지역 마케팅 파트너사 바이오젠은 21일 지난 3분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3종(베네팔리, 임팔디, 플릭사비)의 유럽 시장 매출이 2억790만 달러(약 2430억원)로 전년 동기(1억8360만불) 대비 13%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누적 제품 매출 2조원을 돌파한 '베네팔리(엔브렐 바이오시밀러)'는 유럽 전체 시장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베네팔리 매출액은 지난 3분기 1억

2420만불(약 145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7% 늘었다.

아이큐비아(IQVIA)에서 집계한 의약품 시장 유통 데이터에 따르면, 7월 판매량 기준으로 유럽 전체 시장에서 44%의 점유율로 오리지널 의약품을 제치고 1위를 달성했다. 베네팔리는 유럽 EU5 국가(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지난 해 2분기부터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 점유율을 역전했었으나, 유럽 전체 시장에서는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삼성바이오에피스 제품의 판매실적은 지속 확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선 보인 제품인 '플릭사비(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지난 3분기 전년동기 대비 49% 상승한 2750만 달러(약 320억원)의 분기 매출을 달성했다. /이세경 기자

유도신경줄기세포 개발기술 中 특허 취득

강스템바이오텍 직접 교차 분화

강스템바이오텍은 HMGA2(인자)를 이용하여 비신경 세포로부터 리프로그래밍 된 고효율 유도신경줄기세포 개발기술의 중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HMGA2와 SOX2 2개의 유도인자만 이용하여 역분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리프로그래밍 된 유도신경줄기세포를 제작하는 핵심 기술에 관한 것이다. 기존 4~5개 인자를 이용한 생산 방법보다 더욱 효율이 강화된 유도신경줄기세포 제작이 가능해졌다.

해당 기술을 활용할 경우, 환자의 비신경세포(혈액세포, 체세포 등)를 2주 안에 직접교차 분화시켜 비교적 단기간 내에 환자 자신의 유도신경줄기세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기존 유

도신경줄기세포는 배아단계로 인해 테라토마라는 암 발생 등의 위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해당 기술은 배아단계 없이 직접 교차 분화를 하여 매우 안전하다.

강스템바이오텍의 유도신경줄기세포 개발 신기술은 이번에 중국에서 기술력을 인정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럽, 호주, 일본,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특허 등록을 마쳤다.

회사 관계자는 “직접교차 분화를 통해 신속한 환자 맞춤형 신경줄기세포를 제작할 수 있고, 신경세포 및 별아교세포, 희소돌기아교세포 등 신경관련 세포로 분화가 가능함에 따라 향후 치매, 파킨슨씨병, 알츠하이머, 피크병 등 퇴행성 신경질환과 척수손상 등의 치료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맥도날드, 매장서 100% 해바라기유 쓴다

포화지방산·트랜스지방 함량 낮아

한국맥도날드는 QSR(퀵서비스 레스토랑)이 업계 최초로 전국 매장에 해바라기유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맥도날드는 지난 5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지만 큰 변화' 슬로건 하에 지역사회와 환경에 기여하기 위한 맥도날드의 새로운 실천 계획과 노력을 발표한 바 있다. 식재료 품질 및 공급 부문에서 지속 가능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를 메뉴의 맛과 품질을 높여준다.

는 노력의 일환으로 맥도날드는 후렌치 후라이 등 매장에서 조리 시 사용하는 기름을 프리미엄유인 해바라기유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10월 중 순차적으로 매장에 적용해 현재 모든 매장에 도입을 마쳤다.

해바라기유는 타 식물성유지에 비해 포화지방산 및 트랜스지방 함량이 크게 낮을 뿐 아니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E 함유량이 높은 건강한 식재료로 각광받고 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LG생활건강, 3분기 매출 2조706억 달성

영업이익 5.1% 증가

LG생활건강은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5.4% 성장한 2조706억원, 영업이익이 5.1% 증가한 3276억원, 당기순이익은 6.7% 증가한 2317억원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높아진 브랜드 경쟁력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매출과 이익이 모두 성장했다는 것이다. 매출은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2005년 3분기 이후 59분기, 영업이익은 2005년 1분기 이후 62분기 증가세를 이

어갔다.

뷰티와 데일리 뷰티를 합산한 전체 화장품 3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5.5% 성장한 1조4490억, 영업이익은 2.4% 증가한 2472억을 기록했다.

LG생활건강은 “브랜드 에퀴티(브랜드 자산) 강화를 위해 원칙을 지키면서 브랜드력과 제품력을 기반으로 위기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3분기 누계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4% 증가한 5조7501억원, 영업이익은 3.1% 증가한 964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누계 실적을 갱신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엔제리너스, 반미 샌드위치 리뉴얼 제품 출시

엔제리너스

반미샌드위치 리뉴얼 출시

엔제리너스가 새롭게 리뉴얼한 반미 샌드위치 2종과 샐러드 1종을 23일 출시한다. 엔제리너스는 베트남인이 일상에서 즐겨 먹는 음식인 반미 샌드위치를 베트남 현지 주재 직원의 아이디어 제안을 받아 개발하게 되었으며,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 국내산 쌀로 만들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의 21cm 긴 바게트 빵에 신선한 야채와 고기류 등으로 풍성하게 채워졌다. /조효정 기자

포스코, 세계철광협회 '안전문화 우수기업' 선정

'도전! 안전골든벨' 프로그램 성과 인정

포스코가 21일 세계철광협회에서 주관하는 제13회 안전·보건 우수인증상에서 '도전! 안전골든벨' 프로그램으로 '안전문화 리더십' 분야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안전·보건 우수인증상은 안전활동을 통한 안전문화 성숙도, 안전지표의 변화, 직원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철광협회 회원사 중 '안전문화 리더십', '작업안전', '공정안전', '보건'의 4개 분야에서 우수한 안전활동을 추진한 회사를 선정해 인증한다.

올해 '안전문화 리더십' 분야에는 총 30개 회사가 경쟁해 최종적으로 포스코와 아랍에미리트의 EMIRATES Steel(에미레이트 스틸), 룩셈부르크의 Tenaris(테나리스) 등 3개사가 선정되었다.

포스코는 '도전! 안전골든벨' 프로그램을



지난해 10월 포항 포스코한마당체육관에서 열린 포스코 '제 2회 도전 안전골든벨'에 포스코와 협력사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포스코

통해 직원들의 안전지식과 안전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에 따른 작업현장 고위험·잠재위험 발굴 및 안전활동 참여 횟수 증

가, 불안전 행동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높이 평가받았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T, 부산대병원·스타트업과 VR로 치매예방

SKT가 5G 기술로 부산시 '치매 안심구역' 조성에 나선다.

SK텔레콤은 부산대병원, 룩시드랩스와 '5G MEC 기반 VR 노인 돌봄 시범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3사는 5G·VR·AI 등 최신 ICT를 접목해 부산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지장애 조기

발견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에 참여한 룩시드랩스는 VR 기기 이용자의 시선·뇌파 등의 생체신호를 AI로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한 혁신 스타트업으로, 부산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능력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들은 전용 VR 헤드셋을 쓰고 가상의 슈팅, 퍼즐,

기억력 게임 등을 손을 사용하지 않고 보는 것만으로 즐길 수 있다. 기기에 부착된 센서로 수집된 시선 반응 속도나 뇌파를 AI로 분석해 인지 능력 검사가 가능하다.

3사는 SKT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5G MEC 기술, 룩시드랩스의 VR 기반 인지능력 분석 솔루션, 부산대병원 전문 의료진의 연구 경험 등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한 5G 시대 맞춤형 헬스케어 협력 모델을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전기차 화재 명확히 밝혀야



기지 수첩

양성운 (산업부)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현대차가 2018년 4월 출시 이후 올해 8월까지 국내에서 3만1000여 대를 판매한 코나EV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한 것.

국도교통부가 차량화재 원인으로 배터리 결함을 지목한 상황에서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에 돌입했지만 추가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해당 차량은 리콜조치를 진행하기 앞서 배터리관리시스템 업데이트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으로 현대차와 배터리 공급사 LG화학의 책임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현대차는 LG화학 중국 난징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그린파워충주공장에서 조립한 배터리 팩이 탑재된 일부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조사 결과 배터리 양(+)극과 음(-)극 분리막이 제조 공정상 손상돼 내부 합선으로 불이 날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LG화학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제작한 전기차 중 유독 코나EV에서만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코나EV 차량 화재는 LG화학 이외에도 더 많은 부품사를 점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공정 별로 배터리 셀은 LG화학, 팩은 HL그린과 위(LG화학과 현대모비스 합작사), BMS는 현대캐피코(현대차 그룹 산하 자동차 전자제어시스템 전문기업), BSA는 현대모비스가 만들고 있어 책임소재가 쉽게 가려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동차 사업 초기 미국 등에서 품질 등의 문제로 조롱받았던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피하고 싶을 것이다. LG화학도 '포스트 반도체'라 불리는 배터리시장 공략을 위해 제품 결함에 대해 민감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해당 부품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실히 찾고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상황을 '빨리빨리' 처리하려다보면 또 다른 불신이 쌓이게 되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ysw@

오늘의 운세

10월 23일 (음 9월 7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가까이 있다 해서 소홀히 대하지 마라. **48년생** 자식이 자랑거리를 잔뜩 가져온다. **60년생**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 **72년생** 인생에서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84년생** 상처는 나야도 흉터는 남는다.

37년생 무리한 산행으로 요통이 올 수 있다. **49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61년생** 적의 적은 동지와 같으니 잠시 협조. **73년생** 원하는 것이 없으니 얻을 것도 없다. **85년생**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산다.

38년생 앞면 이가 썩 빠지는 기분. **50년생** 미련은 하루라도 빨리 버려라. **62년생** 추억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 **74년생** 수영을 하러 바다에 나왔으니 해염을 치거나 가라앉거나 돌 중 하나. **86년생**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듯 독서.

39년생 보라색 옷이 행운을 불러오니 기분전환이 된다. **51년생** 돌팔매질을 하면 큰일 난다. **63년생** 가뭄에 단비 오듯이 일이 해결. **75년생** 말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87년생** 실패를 좋은 경험으로 삼아라.

40년생 상대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라. **52년생** 부모님으로부터 오랜 직선이 내게로 돌아온다. **64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지지 않으니 실망은 금물. **76년생** 눈에서 멀어져도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88년생** 망설이는 사이 기회는 날아간다.

41년생 인생에 휴식이 필요하다. **53년생** 상대방에게 기대가 너무 커서 실망도 커진다. **65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변화가 없다. **77년생** 계획해온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89년생** 지나가는 바람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

42년생 창의력이 빛을 발한다. **54년생** 위기를 겪으며 확실한 내편을 깨닫는다. **66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하루. **78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으니 잠시 지체. **90년생**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듯이 노력하라.

43년생 나이는 공로로 먹는 게 아니라 차신을 똑바로. **55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니 당연히 더러워진다. **67년생** 착한 친구를 만나니 행복한 하루. **79년생** 옳다 해도 생색내지 말아야. **91년생** 혼자만 바쁘고 남들은 손 놓고 있다.

44년생 꽃이 아름다운 건 잘 해야 열매. **56년생** 동료와 의견 차이로 약간의 손해가 발생. **68년생** 호랑이 무서운 줄 알고 덤벼라. **80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뛰지 않는다. **92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다시 마음이 혼란하다.

45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57년생** 구름 속 태양을 의심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 **69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81년생** 뜻은 원래하나 민만하지 않다. **93년생** 말만 앞세우는 사람을 조심.

46년생 집안 청소를 하고 환기도 시켜라. **58년생** 명예손상이 우려되니 말조심. **70년생** 아랫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82년생** 획기적인 발상으로 큰일을 한다. **94년생** 작은 약속도 가벼이 여기지 마라.

47년생 진실이 최상의 답은 아니니 포용이 중요. **59년생** 돼지를 사기전에 돼지우리를 먼저 만들어라. **71년생** 목이 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이다. **83년생** 행복은 당신이 만들어가기 나름이다. **95년생** 감정절제를 해야 일이 성사.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신작!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토쿠는 가로,세로,4X3박스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토쿠는 가로,세로,3X3박스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1	2		6	4	9		A	5			
5	6		1	2	9	7		B			
	B	C	9	5	A	3		2	4		
3	4		1	5		C			A		
C	8	7	3	9	2	4	5	B	1	6	
	9	5		6	B		3	C	8		
A	C	9		4	6			2	7		
4	7	5	1	9	2	A	8	6		B	3
	3			B	5	7			4	9	
9	4		C	1	6	3	5	8			
B		7	8	2	4			6		1	
	6	3		7	9	5		4	2		

□	>	□	<	□	<	7	>	□	<	□	>	□	>	□		
□	>	9	>	□	>	6	>	□	>	□	>	1	>	□	>	□
□	>	5	>	□	>	□	>	8	>	□	>	7	>	□	>	4
□	>	□	>	3	>	□	>	5	>	□	>	□	>	8	>	□
□	>	□	>	6	>	□	>	□	>	□	>	2	>	□	>	□
□	>	□	>	4	>	□	>	□	>	3	>	□	>	7	>	□
□	>	□	>	6	>	8	>	□	>	□	>	4	>	□	>	□
□	>	□	>	7	>	□	>	□	>	□	>	2	>	□	>	9
□	>	□	>	□	>	2	>	□	>	□	>	1	>	□	>	□

정답

V	Z	P	F	G	6	8	Z	Q	E	9
L	6	9	Q	V	P	E	Z	8	L	9
L	8	9	E	9	L	8	Q	V	P	Z
6	P	L	V	Z	9	Q	6	Z	8	E
9	L	8	Z	L	E	9	P	8	6	Q
8	Q	E	P	8	9	L	V	9	L	6
9	L	8	9	P	Z	6	E	Z	V	8
Z	V	6	L	Q	8	9	L	9	8	P
P	9	Z	L	E	L	V	9	6	Q	8
8	E	L	6	Z	Q	L	8	P	9	V
Q	9	V	8	6	8	P	9	E	Z	L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컵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김상회의四季

고부간 갈등 심한 편인살(2)

시아머니는 후딱 하면 전화를 하여 이런 저런 요구를 하면서도 아들에게는 늘 말하길 "나는 너희 잘 사는 거 밖에 아무 것도 바라는 거 없다"를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얼마 전에 냉장고가 오래 되어 바꿀 때가 되었다며 계속 얘기하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그냥 넘겨서였는지 꾸지람이 시작되었다. 이 때 며느리는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해 놓았다. 가시 돌친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점점 소리가 높아지더니 며느리에게 욕까지 마구하는 소리를 남편이 들었다.

평생 본 적도 들은 적 없는 어머니의 이중적 행태를 본 남편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아들이 흑여 잘못을 하거나 할 때도 화도 잘 안냄은 물론 험한 말 한 마디도 아끼는 모친이 별 일도 아닌 일도 아내를 몰아세우며 흥분과 함께 욕설까지 하는 것을 들었다.

결혼해서 이십년을 지내오며 아내가 힘들어하던 부분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깰 수는 없는 노릇인지라 남편은 말하길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더 오래 사시겠냐 한다. 어머니의 이중성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직도 며느리의 몫이다.

이런 L여인은 신약한 편인살(偏仁殺)격 즉 효신(孝身)격 사주이다. 효신은 소쩍새격 신살로서 기본적으로 시어머니로 인해 마음 고생이 강하다. 인수가 같은 오행으로 만날 때 편인이라 부르지만 또 다른 별칭이 효신이다. 효신격이 되는 경우는 어머니의 실수로 자식을 곤란함에 빠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반대이기도 하다. 부양이는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기도 한다 하여 효신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부양이는 자라서 자립할 만할 때 어미부양이를 공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55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658호

빛의 블렌딩



안상미 기자
Why, wine

〈83〉 샴페인 앙리오

물감은 다른 색깔들을 섞으면 섞을수록 원하는 색은 언젠가만 탁해진다. 그런데 빛은 다르다. 다른 개성을 지닌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오히려 오토하게 밝아진다.

와인으로 치면 샴페인이 그렇다. 블렌딩의 묘미는 프랑스 보르도 와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르도 와인은 서로 다른 품종을, 때에 따라, 어떤 비율로 섞는지에 따라 맛이 갈린다면 샴페인은 같은 속성을 지닌 빛의 블렌딩인 셈이다.

일단 샴페인은 만들 수 있는 ‘물감’이 많지 않다. 샤도네이와 피노누아, 피노피니에 정도다. 여기서도 피노피니에는 숙성력에 있어 한계가 있어 프리미엄급으로 올라갈수록 배제된다.

그렇다면 ‘빛’의 요소를 심층 활용해야 한다. 같은 품종이라도 여러 포도밭에서 수확한 다른 모습의, 기후가 달랐던 여러 해의 포도가 숙성되면서 각각의 개성을 지닌 빛이 된다. 프리미엄 샴페인이라도 일반 레드와인과 달리 빈티지가 표기돼 있지 않은 논 빈티지(N/V)가 많은 것도 그런 이유다. 샴페인



(왼쪽부터)샴페인 앙리오 브뤼 수버랭 N/V, 샴페인 앙리오 브뤼 로제 N/V, 샴페인 앙리오 브뤼 빈티지 2008, 샴페인 앙리오 블랑 드 블랑 N/V, 샴페인 앙리오 퀴베 에메라 2006. /나라셀라

이야 말로 겉보기엔 같아도 다른 포도밭, 다른 빈티지를 예민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 섞어야 하는 소위 블렌딩의 ‘끝판왕’인 셈이다.

샴페인 앙리오는 지난 1808년에 세워졌다. 그 뒤로 2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변함없이 앙리오 패밀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가족 경영이 많은 와인업계에서도 200년이 넘게 한 가문이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다.

8세대를 내려오면서 가장 큰 장점은 ‘빛의 블렌딩’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이다.

앙리오는 샴페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샤도네이를 주로 쓰면서 기본급에서도 리저브 와인을 30% 이상 쓴다. 리저브 와인이 뭐냐면 몇 년 전에 만들어 숙성시킨, 간장으로 치면 음식 맛을 좌우할 수 있는 씨간장인 셈이다.

‘샴페인 앙리오 브뤼 수버랭 N/V’은

앙리오의 기본급 샴페인이다. 그런데도 리저브 와인을 30%나 쓰고, 샤도네이의 비율이 50%다. 사용 포도의 3분의 2가 프리미에 크뤼와 그랑 크뤼다.

샴페인은 카랑카랑함이 있으면서 지극히 은은하다. 고운 거품과 함께 지나치지 않을 만큼의 힘이 있다. 프랑스인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꼽은 식전 주답게 모든 요소가 딱 알맞다.

‘샴페인 앙리오 퀴베 에메라 2006’은 빛의 블렌딩이라는 앙리오의 스타일을 그대로 구현한 샴페인이다. 6개 포도밭에서 자란 각각의 훌륭한 개성과 특징을 지닌 포도를 잘 블렌딩한 것이 에메라의 강점이다. 소량 생산은 물론 맛이 만족스러울 해에만 만든다. 우아하고 섬세하지만 12년 이상 숙성을 증명하듯 구조감이 입을 가득 채운다.

샴페인 앙리오의 와인메이커 알리스 페디엔느는 지난 21일 ‘샴페인 앙리오 퀴베 에메라’ 2006 빈티지 출시를 기념해 온라인으로 라이브 세미나를 진행하며 “2006년이 기후가 평이했던 것과 달리 경작한 포도의 잠재력이 대단했다”며 “에메라 2006은 훌륭한 6개 포도밭의 개성을 잘 지니고 있어 매운 음식이나 숙성된 참치회를 포함해 사실상 모든 음식과 어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smahn1@metroseoul.co.kr



자료 협조

인터파크 “공연·전시 지원 쿠폰 사용하세요”

1인당 최대 6만4000원 혜택
1차 쿠폰 11월 25일까지 지급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하는 공연·전시 관람료 지원 쿠폰을 10월 22일부터 인터파크에서 선착순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하다.

10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제공되는 공연 관람료 지원 쿠폰은 총 2차로 나눠 신청을 받게 된다. 각 차수당 3만 2000원 상당의 지원금을 총 2차에 걸쳐 받을 수 있으므로 1인당 최대 6만 40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각 차수마다 신청 기간과 쿠폰 사용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싶다면 미리 일정을 체크해 두는 것이 좋다. 10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지급되는 1차 쿠폰은 발급 후 11월 30일까지, 11월 29일부터 12월 25일까지 지급되는 2차 쿠폰은 발급 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은 12월 31일까지 관람 및 예매 가능한 공연에 사용하면 된다.

공연 관람료 지원 쿠폰은 연극·뮤지컬·클래식·오페라·무용·국악 등 순수 공연예술 장르에 한해 사용할 수 있고 대중가수의 콘서트와 레저, 전시 이용권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차수당 1개 예매처에서만 신청·발급이 되고 1매당 할인 금액은 8000 원으로 최소 금액이 1만 원 이상인 티켓에만 적용이 된다. 공연 지원 쿠폰의 장점은 혼공, 커플, 가족 등 관람 인원내 따라 쿠폰의 권종을 5가지 조합으로 구성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각 차수별로 8천 원 할인 쿠폰 4장으로 받아도 되고 1만 6000원 할인 쿠폰 2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반면 10월 22일 오후 2시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및 사용할 수 있는 미술 전시 관람료 지원 쿠폰은 방법이 더 간단하다. 기간 중 3000 원권 할인 쿠폰을 1인당 4개까지 선택해 최대 1만 2000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신청 페이지에 게재된 전시 상품에만 사용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실제 관람도 마쳐야 된다. /신원성 기자 tree6834@



롯데월드몰, 복합문화공간 ‘어바웃’ 오픈

롯데월드타워와 에비뉴엘을 잇는 다이버홀에 문을 연 아트 갤러리 카페 ‘어바웃(ABOUT++)’에서 오는 23일부터 개관 기념 전시를 진행한다. ‘어바웃’은 회화 중심의 갤러리 카페와 차별화해 오브제와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신개념 복합 문화 공간이다. /연합뉴스



샴페인 앙리오 질 드 라루지에르 대표(오른쪽)와 셀러 마스터 알리스 페디엔느가 지난 21일 ‘샴페인 앙리오 퀴베 에메라’ 2006 빈티지 출시를 기념해 온라인으로 라이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풍미 가득 치즈칩, 와인과 ‘찰떡궁합’

오리온 ‘마켓오 리얼치즈칩’
와인 뽀은 맛 약화시키고 풍미 ↑

가을의 정취가 깊어지면서 와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안주 및 스낵류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오리온 ‘마켓오 리얼치즈칩(사진)’은 조리 과정 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급증하는 가볍게 와인을 즐기고 싶어하는 혼술·홀술족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마켓오 리얼치즈칩은 감자 위에 치즈를 토핑한 후 오븐에 구워낸 치즈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스낵이다. 부드러운 까망베르치즈와 고소한 체다치즈 함량이 국내 최고 수준인 19.5%에 달해 와인과 잘 어울린다.

상자만 뜯으면 치즈맛 가득한 스낵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와인 한 모



금과 함께 한입 베어 물면 와인의 뽀은 맛을 약화시키고 와인은 리얼치즈칩의 깊은 맛을 더 풍부하게 해주 궁합이 잘 어울린다.

지난 2014년에는 착한 포장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켓오 리얼치즈칩을 기존 대비 3% 증량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한편, ‘마켓오’는 오리온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2008년 런칭한 이래 고급 원재료를 사용해 본연의 맛을 살린 제품들을 내놓으며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해왔다.

오리온 관계자는 “마켓오 리얼치즈칩은 치즈의 깊은 풍미로 와인과 잘 어울리는 스낵”이라며 “최근 급증하는 혼술·홀술족에게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일교차에도 OK... 레드페이스 ‘재킷’ 출시

투습력 뛰어난 착용감 쾌적

레드페이스는 변화무쌍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가을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게 ‘콘트라 엑스 멜란 파워 재킷(사진)’을 출시한다고 22일 전했다.

콘트라 엑스 멜란 파워 재킷은 레드페이스의 자체 개발 소재인 ‘콘트라텍스 엑스투오 프로’를 적용해 방수·방풍 기능이 뛰어나며, 큰 일교차와 비, 찬 바람 등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도 체온 유지를 도와준다.

땀을 배출하는 투습력 역시 뛰어난 중·장거리 산행에서의 장시간 착용에도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입체 패딩과 톤 다운된 배색으로 자연스러운 멋이 돋보이며, 지퍼 부분 또한 컬러 배색으로 포인트를 더했다.

소매 부분은 벨크로(찍찍이)를 적용해 사이즈 조절할 수 있으며, 가슴 안쪽은 물론 앞쪽에도 수납 가능한 주머니가 있어 편의성을 더했다. 탈부착 가능한 후드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 가능



하며 색상은 브라운, 네이비가 있다.

여성용인 콘트라 엑스 멜란 파워 무먼 재킷 역시 ‘콘트라텍스 엑스투오 프로’ 기능성 소재를 적용해 최상의 방수성과 투습력을 자랑한다.

목 부분까지 지퍼를 올려달 수 있어 방풍 기능을 극대화해주는 집업 스타일은 따뜻함을 유지해 주며, 후드는 쉽고 간편하게 탈부착이 가능하다. 또 허리 부분에는 스트링과 소매에는 벨크로도 미세한 바람도 차단, 찬 바람 유입으로 인한 체온 손실을 줄여준다.

/원미 기자 silverbeauty@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선정작

리진



원작자 신경숙 작가 정경진 연출 손정우

2020. 11. 06. ^{Fri.} - 15. ^{Sun.}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평일 8시

토, 일 3시

무대디자인	이태섭	배우	김화영 이화영 한록수
의상디자인	이유숙		공재민 추헌엽 김재학
조명디자인	신 호		이승현 임휘진 정대곤
안무디자인	이경은		이상경 신민기 김태균
분장디자인	김미숙		공찬영 동예운
액팅 코치	황연희		
드라마터그	김세한		
음악감독	박용신		
무대감독	손규홍		
홍보디자인	TFW		
프로듀서	이황용		

주최 및 주관

유목민

예매  INTERPARK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포골드라인 한강차량기지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정하영 시장. /김포시청

“조합원 파업에도 김포골드라인 이상無”

정하영 김포시장, 차량기지 방문
 정하영 김포시장이 22일 오전 김포골드라인 한강차량기지를 방문,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차량기지 관제실에서 진행된 이날 현장점검에서 정 시장은 김포골드라인 노동조합의 파업이 진행 중인 김포골드라인의 철도운행상황을 점검하고 파업에 따른 비상근무 철저와 시민안전 대책을 주문했다.
 현장점검에서 김포골드라인(주) 권

형택 대표이사는 “김포골드라인은 완전자동 시스템으로 운영돼 현재 조합원의 파업에도 불구 열차의 운행과 검사는 전혀 이상없이 운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정하영 시장은 “완전자동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국내 최고 수준 경전철이기에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은 아직 없지만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포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5년내 해수욕장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부산시 ‘지능형 CCTV’ 등 설치
 부산시가 사계절 안전한 해수욕장을 위해 폐장 기간에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오는 2025년까지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수욕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부산시는 연중 해수욕장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예찰 활동을 펼칠 안전요원을 해수욕장마다 고정 배치하며 희망일자리 인력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 안전사고 유의 표지판과 위험지역 표지판을 보강하며 너울성 파도

와 입수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방송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현재 해운대·송정에만 배치되어있는 자격증을 갖춘 수상구조요원을 7개 모든 해수욕장에 확대 배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국비 총 29억원을 신청기로 했다.
 특히 대포해수욕장 중학생 물놀이 사고의 사례처럼 해변이 넓고 폐장 기간에 인적이 적은 해변에서는 위험지역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안내·경고 방송시스템인 ‘지능형 CCTV’를 설치해 이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시내버스 ‘자전거 휴대승차’ 시범운영

서울시, 26일부터 5개노선 대상
 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두 달간 시내버스 5개 노선에서 ‘자전거 휴대승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버스 후면에 거치대를 설치해 자전거를 실을 수 있게 하거나, 차량 내에 자전거 반입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해당 버스 노선에서는 평일에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주말에는 전 시간대에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 거치대를 장착한 버스는 양천 공영차고지~가양동을 오가는 6657번 노선 6대와 난지한강공원~북한산 구간을 운행하는 7730번 노선 3대다. 자전거 거치는 한 버스당 2대까지 가능하며, 탑승자가 직접 자전거를 실어야 한다.
 버스내 반입이 가능한 노선은 162번(5대), 6513번(4대), 7612번(4대)이다. 각각 정릉~여의도, 가산디지털단지~서울대, 서대문~영등포를 오간다.
 /김현정 기자

해외체류 중개업자, 대리인에 부동산거래 지시 불법 중개행위 중개업소 8곳 적발

서울시 민사단, 강남 등 4곳 조사 공인중개사·보조원 총 14명 입건 등록증 대여 등 26명은 형사입건

본인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무자격 대리인에게 부동산 거래를 중개토록 시킨 공인중개사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달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여행으로 국내에 없는 동안 중개보조원 등이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불법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소 8곳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1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령상 부동산 중개행위를 거쳐 거래계약이 이뤄질 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해야 한다. 업체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나 자격증이 없는 보조원의 중개행위는 불법이다.

서울시 민사단은 지난 7~9월 집값이 급등한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 자치구 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출입국 내역과 업체 거래신고 내용을 비교·대조해 이들을 적발했다.
 민사단은 이와 별개로 등록증 대여, 공인중개사 사칭,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26명을 형사 입건했다.
 위반사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무등록 중개(16명)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 ‘대표’, ‘사장’이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수수료 나눠 먹기로 불법중개(7명) ▲무자격자가 중개대상을 광고(2명)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1명) 등이었다.
 부동산 중개 관련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민사단은 내년부터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외체류 기간 중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자거래나 온라인 커뮤니티 내 담합으로 집값을 왜곡시키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민사단은 스마트폰을 통해 누구나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식으로 신고와 제보가 가능하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며 “업소에 게시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비교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아르헨과 상수도 기술교류 논의

코로나19에 화상회의 방식 진행 각각 양측대사관서 4개기관 참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2일 오전 8시 아르헨티나 상수도공사(Agua y Saneamientos Argentinos·AySA)와 화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보류된 상수도 기술 교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수도 기술 상호 교류를 위한 해외 현지 출장이 잠정 연기된 상황에서 AySA 측이 먼저 화상회의를 제안해 만남이 성사됐다.
 향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AySA 두 기관의 기술 교류를 상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화상회의는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주재하고, 주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대사관(장명수 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전경. /서울시

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AySA 측은 시의 상수원 보호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정수처리기술 등에 관심을 갖고 질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우수한 서울 상수도 기술에 대한 해외도시의 기술 공유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부터 파푸아뉴기니, 베트남, 브라질, 캄보디아, 탄자니아에 전문 기술 인력을 파견해 지원해왔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현지 컨설팅은 잠시 보류됐지만 두 기관이 뜻을 모아 언택트 시대에 국제 기술협력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국내 민간기업을 위한 수도 사업 해외 진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마장축산물시장 악취 잡아 청결환경 조성

서울시 ‘시장 환경개선 시범사업’

60년 역사의 ‘마장축산물시장’은 수도권 육류 유통량의 60%를 차지하는 서울시내 최대 육류 가공·유통 산업 중심지로, 성동구 대표 산업거점이다. 그러나 축산물 가공 과정에서 각종 부산물과 빗물에 의해 발생한 지독한 악취가 인근 주민과 상인 간 갈등을 촉발해 소비자들의 시장 발길이 뜸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성동구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현안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청결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장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주민과 상인 간 갈등을 없애 소비자 유입을 촉진, 도시재생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시는 ▲시장 내 도로 세척 ▲작업공간 내 친환경 EM 살포 ▲동물성 잔재물(유지) 운반·수거 방식 개선의 3대 전략을 동시에 가동한다. 시장에서 나오는 악취를 줄이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물청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시장 바닥과 도로에 묻은 혈흔, 동물성 잔재물(유지)은 스팀 청소 차량을 동원해 매주 3차례 주기적으로 세척한다.
 또 육류 가공이 이뤄지는 작업공간



마장축산물시장 내 청소장비 운영 모습. /서울시

에는 친환경 EM을 살포해 악취를 줄인다. EM 효소는 오염물질을 분해해 수질을 정화하고 악취를 없애는 효과를 낸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육류 가공 후 나오는 잔재물 처리·수거 방식도 개선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48 | 해질 / 17:44

10월 23일(금)
음력 : 9월 7일

수도권 날씨 **4 ~ 13°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0/13, 동두천 1/14, 가평 1/14, 파주 0/13, 서울 4/13, 양평 3/14, 인천 6/13, 수원 6/12, 용인 6/12, 평택 3/14, 백령도 9/1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코로나 시대, 뭉쳐야 산다... 오픈이노베이션으로 극복을”

산학연 협업 중요성 한목소리
민관 합동 한국형 플랫폼으로
연구개발 효율성 극대화해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은 물론 규제당국과 연구단체 까지 하나의 목표로 뭉치는 협업의 계기를 마련했다. 국내 56개 제약·바이오기업은 사상 처음으로 공동 출자를 결의했고, 국산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통한 국민 건강 주권 확보 의지를 다지고 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

2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0 제약&바이오 포럼’에 참석한 강연자들은 코로나 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민관은 물론 산학연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에 따르면 한국은 OECD 20개국 중 신약 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홀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0 제약&바이오 포럼’에 참석한 김재욱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제제과장이 강연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발단계에서의 혁신 효율성이 절대적으로 낮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과 분업·협업의 활성화가 필수 요소다. 유럽은 현재 기업과 기관, 병원 및 연구단체들이 각각의 사업적 장점 분야를 공유함으로써 연구개발(R&D)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있다.

허경화 KIMCo 대표는 “제약·바이오 산업 혁신 효율성을 국가별 비교하면 한국은 혁신 신약개발 연구단체보다 개발단계의 생산성이 낮다”며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은 민관협업 한국형 플랫폼 구축을 통해 R&D 효율성을 극대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하에 산학연이 연계한 오픈 이노베이션도 중요한 요소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소 대표는 “정부 차원 국제 협력과 공조를 통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분위기 확산 등 글로벌 리더십 필요한 상황”이라며 “코로나 19는 물론 신종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는 사후적인 대처보다는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 주권을 확보하라

국내 기업과 규제당국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주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리퓨어생명과학은 이미 검증된 중화항체 서열을 활용해 치료제를 개발하기 때문에 항체 기능 검증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

유정운 리퓨어생명과학 연구소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 등 기존 형태

의 단백질 뿐 아니라 또 다른 4개의 구조 단백질들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개발 한계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다른 감염성 질환 극복하는데 빠르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K-치료제·백신 신속심사 추진반을 운영하고, 개발단계부터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자문과 신속심사를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심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절차 간소화 등 규제 개선에도 나섰다.

김재욱 식약처 백신검정과장은 “코로나19 재유행 및 감염병 대유행 대비 위기대응 치료제, 백신 등 신속 인허가를 위한 규제 유연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해외에서 개발 중인 백신과 치료제는 수입 과정에서 꼼꼼하게 안전성과 효능을 검토해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포럼 현장



21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홀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0 제약&바이오 포럼’에 참석한 내빈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손진영 기자

“K-바이오, 미지의 영역 도전... 성장 계기”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코로나19는 K-바이오 성장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는 지난 2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0 제약&바이오포럼’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이 대표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가져온 결과는 참혹했다”면서 “현재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라며 개회사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과거 바이러스 팬데믹의 역사를 예로 들었다. 1300년대 흑사병은 유라시아 지역을 휩쓸며 수억명의 사망자를 냈고, 15세기 중반 유럽인들이 멕시코지역을 정복할 당시, 아즈텍 왕국에 퍼트린 천연두, 홍역, 독감 등 각종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없던 원주민의 90%의 목숨을 앗아갔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홀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0 제약&바이오 포럼’에 참석한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그는 이러한 바이러스의 대공습은 어떤 이슈보다도 인류의 삶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국민과 정부는 어느 나라보다 모범적인 방역 원칙을 준수하며 바이러스에 맞서고 있다”며 “실제 K-방역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자부심을 가질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를 통해 국내 제약 바

이오 기업들이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자세로 제약바이오 관계자들은 어려울수록 ‘백투더베이스’로 돌아가자”면서 “이번 포럼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는 K-바이오의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주최 이유를 전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5차 산업혁명 출발점은 ‘제약·바이오’”

축사 조동성 산업정책 연구원장

“코로나19를 계기로 제약산업에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공지능(AI) 활용 폭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조동성 산업정책 연구원장(사진)이 지난 2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0 제약&바이오포럼’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조 이사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이날 웨비나로 진행된 포럼에 맞춰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그는 “메트로신문에서 ‘포스트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라는 제목의 포럼을 진행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

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방 백신을 만들고 모두가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행사에서 우리 미래를 환하게 밝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며 포럼의 성과에 관심을 표했다.

조 이사장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면으로 옮겨가는 이때, 제약이 그 길에 합세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제5의 산업혁명, 다시 말해서 AI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 ‘제약바이오’”라고 강조했다.

/원은미 기자



[산업] 요즘 대세는 차박 완성차업계 캠핑족 겨냥 상품 붐물 08



Life

[라이프] 블프·광군제 할인 나서는 유통업계 너



“한국형 플랫폼 구축해 R&D 분업·협업 활성화 해야”

기조강연 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대표

코로나19로 전세계 협업 시대 열려 민관협업 구축 등 효율성 극대화해야

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대표는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 제약 바이오산업의 현주소와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을 공고히할 수 있는 기회를 조망했다.

2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2020 제약·바이오포럼-포스트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가 열렸다.

이날 허 대표는 “올초 발발한 코로나19가 글로벌 팬데믹 상황으로 번질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전세계가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해 협업해야하는 시대가 왔다”고 입을 뗐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K-제약·바이오 산업의 포지션을 검토하고 글로벌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아젠다를 ▲제약바이오산업 중요성과 가치 ▲제약바이오산업 정책 ▲제약 바이오산업 현황과 전망 ▲우리의 과제, 혁신 성장 기회와 도전대 내까지 정의했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홀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0 제약 & 바이오 포럼’에 참석한 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대표이사가 기조강연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제약 바이오산업은 국민의 보건·건강에 직결된 산업이다. 때문에 필수 의약품들을 국가 자체적으로 생산해 국민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역량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게다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의약품 수요 또한 늘고 있다.

허 대표는 “제약바이오산업은 기술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앞으로 30년은 이 산업이 우리나라를 리드하는 성장

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제약바이오산업은 3.8%의 저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허 대표는 “올해는 저성장을 보이지만, 2026년까지 글로벌 처방약시장은 연평균 7.4%(약 1200조) 성장할 전망”이라며 글로벌 기업간 시장 점유율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TOP10의 영향력이 줄고, 중소중견 바이오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기업에게 기회라는 말과 같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는 지난해 한국을 ‘글로벌 혁신지표 1위’로 선정한 바 있다.

허 대표는 “OECD 20개 국가중 한국은 개발단계에서 혁신효율성이 낮다. 연구와 개발의 분업·협업 생태계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관협업 한국형 플랫폼 구축을 통해 R&D 효율성을 극대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제약바이오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과 보건 향상, 더 나아가 제약바이오산업이 국가 브랜드로서 전세계 TOP 에 손꼽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허 대표는 55개 제약기업이 출자해 설립한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KO)을 운영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사상 최초의 공동 투자·개발 플랫폼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설립됐다.

/신원성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정운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이사.

“반도체 이어 제약 강국으로… 자본-기술 융합 혁신 키워드”

강연 정운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이사

“자본과 기술과의 융합이 앞으로 혁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정운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이사는 지난 2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0 제약·바이오포럼’에서 이 같이 조언했다.

이날 정 대표는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이어서 제약 강국이 될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든다”며 “트렌드를 잘 읽고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주요 산업은 빅데이터, 재생의료, 정밀 의료, 웨어러블 기기, 인공지능 3D프린팅 등이라며, 이 산업들에는 자본과 기술과의 융합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자본과 기술이 합쳐지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산업 생태계 내에서는 각자 다른 이해관계를 절충해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에 따르면, 첫번째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는 비임상 전임단계서는 속도와 비용을 인공지능(AI)의 활용으로 타깃 밸류에이션 극복, 선제적 임상개발 전략, 환자 선별 등에 힘써야한다.

정 대표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환자들이 많은 나라를 대상으로 치료제 투여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수출과 연구 개발에 더욱 매진하는 것이 타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김용상 리퓨어생명과학 대표.

“면역단백체 분석 기법 활용해 코로나 항체치료제 검증 단축”

강연 김용상 리퓨어생명과학 대표

“최신의 면역단백체 분석 방식을 통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연구 기간 단축하겠습니다.”

김용상 리퓨어생명과학 대표는 2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0 제약·바이오포럼’에서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제시했다.

리퓨어생명과학은 지난 6월 부터 연세대학교 의과대 산학협력단, 경남바이오파마와 함께 ‘코로나19 완치자 혈장 유래 치료 항체’를 개발하고 있다.

이날 김 대표와 함께 강연대에 오른 유정운 리퓨어생명과학 연구소장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는 검증된 중화항체 단백질을 사용해 항원결정부위 단백질 서열을 신속하게 확보가능하다”며 “항체의 단백질 서열을 분석해 인간하에 개발을 진행하므로 잘못된 조합의 항체 방지며, 이미 중화능이 검증된 중화항체의 서열을 사용해 개발하므로 항체의 기능 검증 시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퓨어생명과학이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 뿐 아니라 다양한 감염병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 소장은 “이번 연구가 제시하는 면역단백체 기법을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용 항체 제작 계획은 향후 다른 감염성 질환의 치료용 항체 제작에도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김재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제제과 과장.

“식약처, 백신 인허가 위해 규제 유연화 등 적극 지원”

강연 김재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제제과 과장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제제과장은 2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0 제약·바이오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 과장은 “코로나19 재유행 및 감염병 대유행을 대비 하기 위한 위기대응 치료제·백신 등에 대한 신속 인허가를 위한 규제 유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신속심사 지원을 위해 고(GO) 신속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연구지원 ▲허가심사 지원 ▲기술정보 지원 등 허가심사경험이 많은 심사자의 전문컨설팅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임상시험 승인 및 품목 허가시 제출자료 면제 신속심사를 지원한다.

김 과장은 “횟수 제한 없이 하루에도 몇건씩 개발 단계부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어떻게 생각하지 말고, 코로나 19 백신을 개발하고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식약처와 상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신속한 개발로 놓치기 쉬운 백신과 치료제의 효능과 안전성 검토에도 집중하고 있다.

김 과장은 “국내 개발 제품은 물론 해외 수입 백신 역시 효과와 안전성 등 품질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